

리아호나

성전 의식 참여를 권고 받는
사람들, 40쪽

축복사의 축복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18쪽

우리 삶의 불 청소, 친2쪽





주님의 집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은
인간 영혼의 불멸성에 관련된 중요한
기본적 교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가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충실할 때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대관장단 서한”, 47쪽
참조: 또한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의 “성전 의식 참여를 권고
받는 사람들”, 40쪽 참조

리아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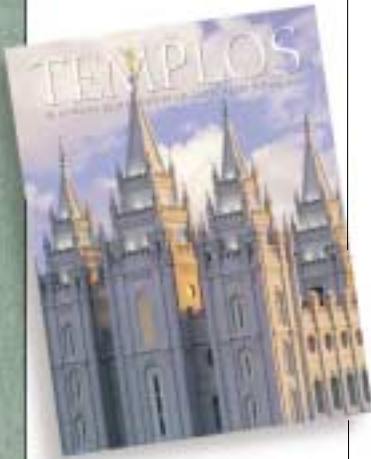


표지

앞: 사진 촬영: 제리 간스. 뒤: 사진 촬영: 엘튼 시 앤더슨, 에리조나 메사 성전;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몬드, 중국 홍콩 성전 사진 멕시코 멕시코시티 성전; 사진 촬영: 플로이드 홀드만, 통가 누크알로파 성전.



친구들 표지
삽화: 주얼 호드슨



"대관장단 서한", 47쪽 참조

성인

- 2 대관장단 메시지: 평화를 찾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순종을 통해 느끼는 주님의 사랑
- 26 참으로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필요로 하는지 몰라요!
보니 디 파킨 자매
- 31 고난 중에 받는 위로 콜린 엠 페이트
- 34 그것은 희생이 아니었다 카산드라 린 차이
- 36 말일성도의 소리
"아버지를 위해 선교사를 찾아보아라" 루이스 로베르토 라모스 데 사 필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은 영구 교육 기금 김 시트랄필리 산체스 알다나 카마초
어둠 속에서 외롭게 트리사 마틴
- 40 복음 고전: 성전 의식 참여를 권고 받는 사람들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
- 47 대관장단 서한

청소년

- 8 모로나이의 발 애담 시 올슨
- 12 가장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됨
- 18 축복사의 축복에 대하여
- 22 나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가? 레이첼 머독
- 48 알고 계십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됨", 12쪽 참조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예언자의 음성을 들으라: 봄 청소년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다시 깨끗하게 되는 방법
실라 이 윌슨
- 친6 야생화와 기도 게일 엠 클레그 자매
- 친8 포스터 기사: 회개와 속죄
- 친10 친구가 친구에게: 간증의 시작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
- 친12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생애에서: 목표를 달성함
- 친14 메리 제인은 귀 기울였습니다
메리 앤 스노우볼



"알고 계십니까?"
48쪽 참조



주님의 집으로 오라, 그랜드 롬니 클로슨

“끝남에 이르러는 여호와와의 전의 산이 작은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난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미가 4:1~2)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입니다

대관장단: 고든 비 힐클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킨,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데니스 비 노인슈만
고문: 이 레이 베이트먼, 몬티 제이 브러프, 제이 이 젠슨, 스티븐 에이 웨스트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프리스네흐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비티 디 케이브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잡지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롬니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편집 스태프: 콜렛 네베커 오온, 수잔 브렛, 라이언 키, 린다 스탈 쿠퍼, 라렌 포터 곤트, 샤나 가즈나비, 제니퍼 엘 그린우드, 리사 앤 잭슨, 캐리 카스텐, 멜빈 레빗, 샬리 제이 오데커크, 애덤 시 울슨, 주디스 엠 팔러,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리, 제넷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외델, 캄벌리 웹, 모니카 엑스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엘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캠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켈리 알렌 프렛, 페이 피 앤드리스, 시 킴볼 보트, 하워드 지 브라운,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브렌트 크리스티슨, 케리 린 시 헤인, 캐서린 하워드, 데니스 커비, 타드 알 피터슨, 랜달 제이 픽스톤, 마크 더블류 로비슨, 브래드 키어,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워너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치워크
배우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슨

통 권: 제 456호, 제 41권, 제 3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1166
발행일: 2004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무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의도/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우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아르메니아어, 불가리아어, 캄보디아어, 세부어, 중국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카리비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밀어, 텔루구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4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March 2004 No. 3.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가장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됨”, 12쪽: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와 찰스 디디에이 장로가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세대”에 합류할 준비를 하는 젊은이들에게 권고한다. 제언들에 대해 여러분의 자녀와 토론한다. 현재의 나이와 상관없이, 선교사로 봉사할 때가 되면 영으로 가르칠 준비를 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었다”, 34쪽: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고 있던 어떤 것을 희생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축복을 받았던 자신의 경험을 나눈다. 주님은 때로 우리가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계획들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한다.

“성전 의식 참여를 권고 받는 사람들”, 40쪽: 성전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말한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의 기사를 이용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성전 의식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각 사람에게 성전에 참여하기에 늘 합당하도록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전 가까운 거리에 살 경우, 자주 참석하도록 권유한다.

“축복사의 축복에 대하여”, 18쪽: 자녀들에게 축복사의 축복에 대해 질문이 있는지 묻는다. 이 기사에 있는 내용을 사용하여 질문에 답한다.

“알고 계십니까?”, 48쪽: 예수님의 침례에 관해 읽는다.(마태복음 3:13~17; 마가복음 1:3~11; 누가복음 3:21~22;

요한복음 1:19~37) 모든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예수님과 그분의 예언자들은 모범을 보여 주셨다.

이 기사를 활용하여, 예언자들의 침례에 관한 퀴즈를 만든다. 예를 들어, “어느 예언자가 풀장에서 침례를 받았는가?”라는 것과 같은 질문들을 할 수 있다.

“야생화와 기도”, 친6쪽: 함께 게일 엠 클레그 자매의 이야기를 읽는다. 자녀들에게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는지 묻는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항상 가까이 계신다는 것과, 야생화와 같이 단순한 것이 부모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속죄, 친8
가정 복음 교육, 7	순결, 22, 친2
가정의 밤, 1, 31	순중, 25, 34
가족 관계, 31, 친6	산권의 축복, 36, 친14
가족 역사, 40	신앙, 34, 36
간중, 친10	역경, 31, 36, 친6
개종, 36, 친14	영구 교육 기금, 36
경전 공부, 31	예수 그리스도, 2, 친4, 친8
교회사, 48	예언자, 48, 친12
기도 31, 36 친6	음악, 31
모범, 8	준비, 8, 12, 18
목표, 친12	지도력, 48
방문 교육, 25	초등학교, 친4, 친10
범세계적인 교회, 8, 친10	축복사의 축복, 18, 22
부활, 2	침례, 48, 친14
사랑, 25, 친6	평화, 2
상호부조회, 26	회개, 22, 친2, 친4, 친8
선교 사업, 8, 12, 친14	희생, 34
성전, 40, 47	



평화를 찾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왜 폭력이 세상에 난무하는지, 살인과 분별없는 살해 사건들이 왜 신문 지면을 가득 채우는지, 왜 가족의 다툼과 불화가 가정의 신성함을 해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정을 잃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평화에 이르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우리는 멈추어 서서 평강의 왕의 가르침을 명상하고 숙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 가르침을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적용하고, 좀더 높은 법에 따라 살며, 더 차원 높은 길을 걷고, 더 나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필요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화의 적

아프리카의 기아가 몰고 온 황폐, 중동에 감도는 증오와 잔인성, 그리고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민족 분규는 노력과 굳은 결심 없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가 결코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분노와 증오, 그리고 분쟁은 쉽게 정복되지 않는 적들입니다. 이 적들은 반드시 파멸 속에 슬픔의 눈물과 분쟁의 고통과 산산이 깨어진 희망을 자취로 남깁니다. 그들이 미치는 영향은 전쟁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종종 가정과 개인의 마음에까지 이릅니다. 머지않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권고를 잊어버리고 뒤늦게서야 그

권고를 기억할 것입니다. “다툼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게 하며 …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악마에게 속한 자니 악마가 분쟁의 아버가 됨이라. 저가 사람의 마음을 책동하여 서로 성내게 하며 다투게 하는도다.

“보라 사람의 마음을 책동하고 분노를 돋구어 서로서로 다투게 함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요, 이러한 일을 금하게 함이 나의 가르침이라.”¹

시계 바늘을 되돌려 약 65년 전으로 돌아가면 독일 남부 도시인 뮌헨의 바바리안 시에서 열린 평화 회담이 떠오릅니다. 유럽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세계 대전 직전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언급된 회담의 목적은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신과 음모와 권력의 추구 때문에 회담은 결렬될 운명에 놓였고, 그 결과는 “그 시대의 평화”가 아니라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전쟁과 파괴였습니다. 앞서의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의 사무치게 절절한 호소는 전적으로 무시되거나 외면되었습니다. 그는 친구와 적을 하나로 여기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플랜더즈 들판에 양귀비꽃 피었네,
줄줄이 서있는 십자가들 사이에.



평화에 이르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우리는 멈추어 서서 평강의 왕의 가르침을 명상하고 숙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 가르침을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운 곳 알려주기 위함일세.
하늘에는 종달새 힘차게 노래하며 날아오르건만
저 밑에 요란한 총소리 있어 그 노래 잘 들리지 않네.

우리는 이제 운명을 달리한 자들.
며칠 전만 해도 새벽을 느꼈고 석양을 바라보았네.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받기도 하였건만
지금 우리는 플랜더즈 들판에 이렇게 누워 있다네.

원수들과 우리들의 싸움 포기하려고
힘이 빠져가는 이 손으로 그대 향해 내미는 이 햇불
그대 붙잡고 높이 들게나.
우리와의 신의를 그대 저버린다면
우리는 영영 잠들지 못하리,
플랜더즈 들판에² 양귀비꽃 핀다 하여도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야만 합니까? 유명한 정치가였던 윌리엄 글래드스톤은 “우리는 사랑의 힘이 힘의 사랑을 대신하게 될 날을 학수 고대합니다. 그때 세계는 비로소 평화의 축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는 평화의 공식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고상한 목표이겠지만 세계 평화는 개개인이 얻고자 하는 개인적인 평화의 결과입니다. 저는 인간이 추구하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가정 안에서의 평화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의 평화와 우리의 삶에서의 평화를 말합니다. 인간의 방식에 따른 평화는 사라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른 평화만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분노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분노는 아무것도 세우지 못하고 그저 모든 것을 파괴할 뿐이다.”³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분쟁의 결과는 너무 황폐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의 길을 추구할 때 우리의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만유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에는 선행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무시키고 발길을 인도해 줄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1. 자기 성찰을 합니다.

2. 밖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습니다.

3. 하늘을 바라봅니다.

첫째, 자기 성찰을 합니다. 자기 평가는 언제나 힘든 과정입니다. 우리는 교정을 요하는 부분을 그럴싸하게 얼버무리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장점에 언제까지나 안주하려는 유혹을 자주 받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평화의 값은 의로움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나라마다 큰소리로 ‘평화, 평화’를 외치지만, 개개인의 영혼에 평화가 싹터 자라게 하는 데 바탕이 되는 개인의 순결, 고결한 성품 등의 원리를 키우지 않으면 평화란 올 수 없습니다. 평화는 강요될 수 없습니다. 평화는 인간의 삶과 마음에서 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⁴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엘 에반스(1906~1971)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내부의 평화, 명철을 초월하는 평화를 찾기 위해서 인간은 정직하게 살아야 하며 서로를 존중해야 하며 책임을 중시하고 기꺼이 일하며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끼며 인내심과 덕과 신앙과 관용을 가지며, 인생이란 배우고 봉사하고 회개하고 발전하기 위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와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는 방법인 회개와 발전의 축복된 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⁵

이 점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책임을 검토해 볼 때 가정과 가족 안에서의 부모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저명 인사들이, 유독 젊은 사람들의 삶에서 폭력이 늘어나는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협의한 사항 중 일부 견해는 우리가 우리의 우선 순위를 살펴볼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생한 폭력을 오락으로 보는 사회는 분별없는 폭력으로 가장 영리한 젊은이들의 꿈이 산산 조각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실직과 절망은 자포 자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존엄성과 정직과 성실성이 복수나 분노보다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받아 왔다면, 그리고 존경과 친절이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준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더이상 자포 자기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폭력 방지 회담을 가진 여성들은 파괴 행위와 참혹한 고통으로 끊임없이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정통적인 가족의 가치관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⁶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이 단순히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주기를 호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자녀들이 더 많은 물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부의 축적, 즉 재산의 증식은 주님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⁷

어느 날 저녁 저는 한 무리의 부모와 자녀들이 “미녀와 야수”를 보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의 한 교차로를 건너 큰 공연장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차를 길모퉁이에 세우고 즐거워하는 무리를 보았습니다. 자녀의 성화에 못이겨 따라 나온 것이 분명해 보이는 아버지들은 소중한 자녀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에 대한 무언의 설교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선 순위대로 시간을 재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방법을 좇아 우리가 자신을 발전시킬 때 진실로 평화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모든 것 아름답고”⁸라는 익숙한 노래의 간단한 가사 속에 숨어 있는 깊은 영성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밖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으십시오. 비록 승영은 개인적인 문제이며, 단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틀림없다 할지라도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교회 회원이 되면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권유 받습니다. 책임을 수행하는 직책이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보상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받아들이시는 봉사는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과 준비된 손과 지극한 정성으로 하는 봉사입니다.



때로는 절망이 우리의 앞길을 어둡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감이 계속 우리를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간교함으로 우리 귀에 “너는 세상을 구할 수 없어. 너의 그 작은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살필 시간이 어디 있어.”라고 속삭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러한 거짓으로부터 우리의 머리를 돌리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발이 봉사의 길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데 전념하게 합시다. 해결의 빛이 희미해지고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주님의 약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함에 지지치 말라.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 보라, 주는 진심을 구하시며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느니라.”⁹

한 해 동안, 초등학교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보다 잘 알게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일로 어린아이들이 자주 성전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자유로운 소년들의 기쁨과 넘쳐 흐르는 힘은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가 어린아이들을 솔트레이크 성전의 거대한 문으로 이끌고 어린아이들이 손을 내밀어 성전을 만져 볼 때 저는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환영하며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고 상한 목표이겠지만 세계 평화는

개개인이 얻고자 하는
개인적인 평화의
결과입니다. 저는 인간이
추구하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가정 안에서의 평화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의
평화와 우리의 삶에서의
평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할 때, 영적인
힘에 이르는 길
곧 평화를 얻는 수단인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데서
우리는 위안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¹⁰

셋째, 하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하늘을 향할 때,
영적인 힘에 이르는 길 곧 평화를 얻는 수단인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데서 우리는 위안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길을 몸소 보여 주신
개척자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평강의
왕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신성한 계획은 죄의
바벨론과 자기 만족과 잘못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모범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주님은 유혹에 직면했을 때 유혹을 피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때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이 요구되었을 때
기꺼이 주셨습니다.

한번은 예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 여호와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¹¹ 이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곧 평화를 분명히 선포한
것입니다.

중증 죽음은 예기치 않게 침입자로서 오게
됩니다. 죽음은 삶의 빛과 기쁨을 꺼 버리며 삶의
즐거움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는 적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목직한 손을 얹고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놀라게 한 채 떠나가
버립니다. 간혹, 극심한 고통과 질병에 시달릴
때에는 죽음이 자비의 천사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족의 일원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주님이
주는 평화의 약속은 병을 고치는 평안의
유향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¹²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¹³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실재를 알고 가족은 영원하다는 확고한
지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한
사람 가운데 설리반 발로우 소령이 있었습니다.
설리반 발로우 소령은 남북 전쟁 당시, 자신이 불린
전투에서 죽기 바로 일주일 전에 부인에게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편지를 썼습니다.

“1861년 7월 14일

“워싱턴 캠프 클락 기지에서

“나의 사랑하는 사라에게

“며칠 후, 어쩌면 내일 이동하게 될 것 같소.
어쩌면 내가 다시 편지할 수 없을지 몰라, 몇 자
적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요.

“나는 내가 참여하고 있는 대업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갖고 있으며 나의 용기는 꺾이지 않고
있소. 나는 … 이 정부를 지키기 위해 생의 모든
즐거움을 뒤로 하고 기꺼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소.

“사라,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이요. 그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끊을 수 있는 줄로 나를 묶고 있는 것
같소. 그러나 국가에 대한 나의 사랑은 강한
바람처럼 나에게 몰려와 전쟁터에서 빠져 나갈 수
없게 나를 묶고 있소.

“내가 당신과 함께 보냈던 축복 받은 순간들이
떠올라 내가 이 기억들을 이렇게 오래도록

향유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과 당신에게 크게 감사함을 느끼오. 나로서는 이 기억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함께 살고 사랑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 훌륭한 성인이 되는 것을 지켜볼 수도 있을 미래의 희망을 재 속에 묻는다는 것이 무척이나 힘드오. 그러나 무언가가 나에게 속삭이오. 어찌면 이것은 내가 해를 입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오게 해 달라는 나의 귀여운 에드가의 기도일지 모르오. 나의 사랑하는 사라, 만약 내가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지 말아 주오. 전쟁터에서 나의 마지막 숨이 내게서 떠나게 될 때 그 숨소리는 당신의 이름을 속삭이는 것이 될 게요. 내가 당신에게 한 잘못과 당신에게 준 많은 고통들을 용서해 주오. 내가 얼마나 자주 무분별하고 어리석었는지. 당신의 행복을 망쳤던 모든 작은 얼룩을 나의 눈물로 씻어 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쁠지 모르겠소. “그러나 오 사라! 만약 죽은 자들이 이 지상에 돌아와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머물 수만 있다면 나는 늘 당신 옆에 있겠소. 가장 기쁜 날에도 가장 어둔 밤에도 ... 항상, 항상 당신 곁에 있겠소. 당신의 뺨에 부드러운 미풍이 느껴지면 그건 나의 입김일 게요. 시원한 바람이 당신의 육신거리는 관자놀이에 불어 오면 그건 나의 영이 지나가는 때문일 게요. 사라, 내가 죽었다고 슬퍼 마오. 내가 먼저 가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오. 왜냐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다시 만날 테니 말이오.”¹⁴

우리의 평화의 메시지

죽음의 암흑은 계시로 밝혀진 진리의 빛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¹⁵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시신을 보살피기 위해 무덤에 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전한 천사의 말을 주님의 말씀에 덧붙입니다.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¹⁶

그것이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참으로 모든 사람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덤이 노르만디의 십자가로 표시되어 있든지, 봄이 되면 양귀비꽃이 휘날리는 플랜더즈 들판의 성스러운 휴식처에 있든지, 그들에게 평화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바다 깊숙한 곳을 포함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역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기쁨 주는 이 말씀, 내

구주 살아 계시다!”¹⁷ ■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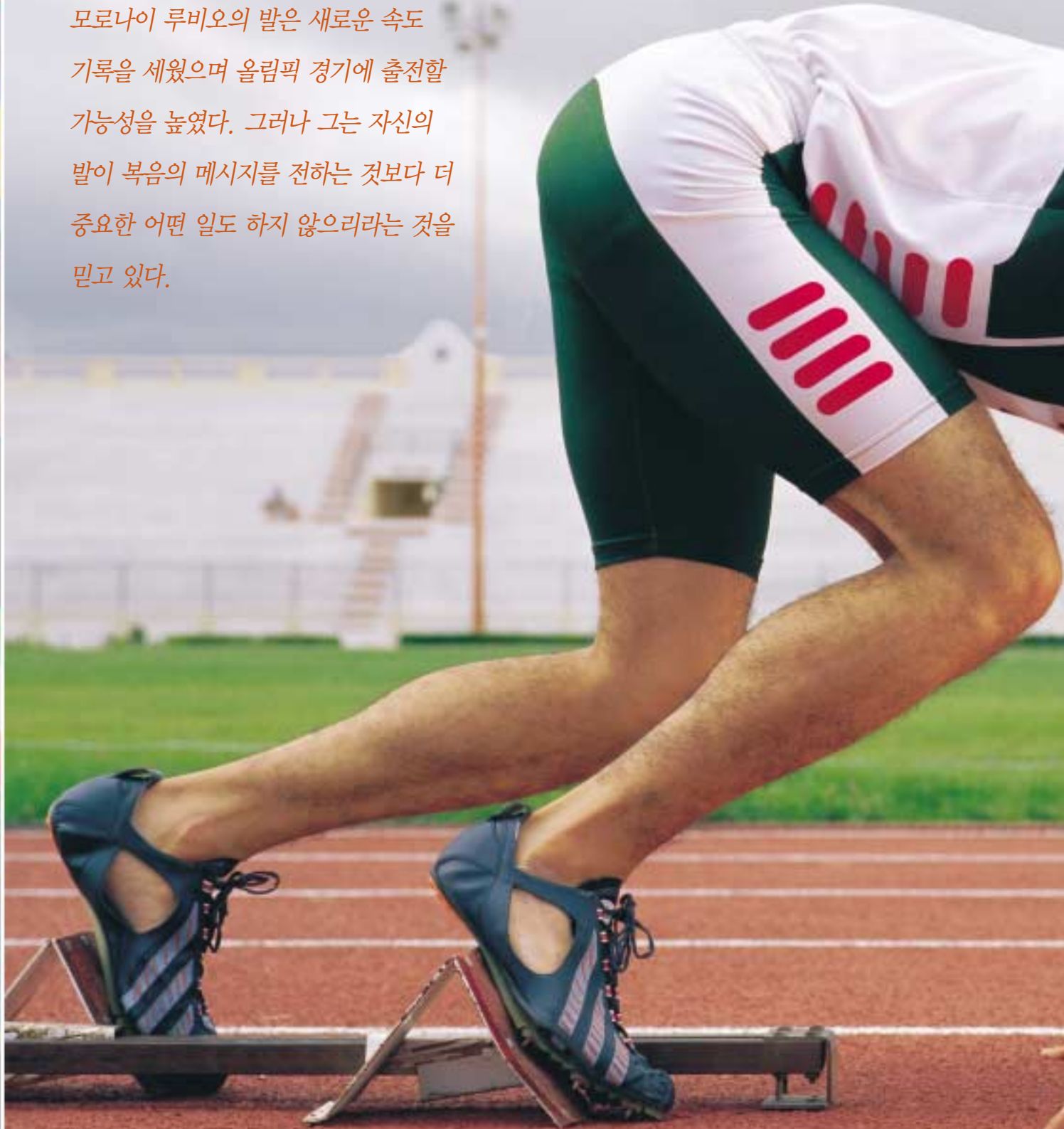
1. 니파이삼서 11:28~30.
2. John McCrae, “In Flanders Fields”, *The Best Loved Poems of the American People*, Hazel Felleman(1936), 429.
3. L. Douglas Wilder, “Early Hardships Shaped Candidates”에서 인용, *Deseret News*, 1991년 12월 1일, A2쪽.
4. “Purposeful Living”, *Listen, A Journal of Better Living*, 1955년 1~3월, 19.
5. Conference Report, 1959년 10월, 128.
6. “Family Values in a Violent Society”, *Deseret News*, 1994년 1월 16일, A12쪽.
7. 마태복음 6:19~21.
8.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찬송가 174장.
9. 교리와 성약 64:33~34.
10. 마가복음 10:14.
11. 이사야 61:1; 또한 누가복음 4:17~20 참조.
12. 요한복음 14:27.
13. 요한복음 14:2~3.
14. Geoffrey C. Ward, *The Civil War*(1990), 82~83에서 인용.
15. 요한복음 11:25~26.
16. 누가복음 24:5~6.
17. “내 구주 살아 계시다”, 찬송가 68장.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관한 주요 기사가 실린 신문을 보여 주고 가족에게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는지 묻는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화를 찾고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구세주께서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한다.
2. 가족 중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학교에서 누군가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었는지 묻는다. 가족들에게 구세주께서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하도록 부탁한다.
3.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 중에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 있는가? 구세주의 부활과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하거나, 혹은 적절할 경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가족들과 간증을 나누게 한다.

모로나이 루비오의 발은 새로운 속도 기록을 세웠으며 올림픽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발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일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



애담 시 올슨
교회 잡지

모로나이 루비오는 겨우 16세의 나이에 멕시코에서 가장 빠른 단거리 선수가 되었으며 100미터와 200미터에서 기록을 경신했다. 같은 해, 즉 2002년에는 중미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유카탄 주에서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다.

그의 꿈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2008년 하계 올림픽에 나가는 것인데 그 꿈은 그의 발에 달려 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의 발은 이미 위대한 일을 성취한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그는 발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의 독특한 이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모로나이는 그가 거둔



청소년 부문에서
100미터와 200미터
신기록을 세운 모로나이
루비오는 체육인으로서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모로나이의 발 걸음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몬드, 표시된 부분을 제외함; 사진 촬영: 애담 시 올슨



학교, 교회, 훈련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로나이는 즐겨 기타를 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우승 때문에 이미 여러 번 텔레비전에 출연했으며, 그 때마다 그의 이름이 화면에 나왔다.

멕시코 메리다 라틴 스테이크에서 제사 신권을 소유한 모로나이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이름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복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를 관람하는 회원들은 제 이름을 보고 제가 회원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저는 그들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코치들은 항상 그에게 보폭이 좋다고 말한다. 그러나 모로나이에겐 있어, “아름다운 발”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선교사에 관한 이사야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중요하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 자의 산을 넘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이사야 52:7)

희생

그가 현재의 위치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는 매우 바쁜 일정을 가진 단거리 선수이다. 모로나이는 일찍 학교에 간다. 방과 후에는 빨리 간식을 먹고 훈련에 참여한다. 저녁 8시경 집에 와 저녁을 먹고 나면 숙제 하기도 바쁘다. 그런 다음 잠자리에 든다. 모로나이를 바쁘게 하는 것은 트랙에서의

과제만이 아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희생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거나 기타를 치는 일 등을 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습니다.”

조화를 이루는 선수

모로나이가 훈련 일정을 숙제, 가족, 교회 및 친구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짜려고 노력할 때 “제 힘에 겨웁게” 달리는 사람에 관한 성구가 그에게는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다른 많은 십대의 말일성도들처럼, 모로나이는 너무 많은 일을 함으로써 부담스럽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 모로나이는 달리기 선수로서의 경험을 통해 너무 무리하게 할 경우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베냐민 왕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이 제 힘에 겨웁게 행함이 마땅하지 아니함이라.”(모사이아서 4:27)

그러나 모로나이에겐 그 구절은 안전 지대에 머물게 하는 변명이 되지 않고 힘을 키우는 도전이 된다. 그가 14세에 100미터 경주를 했을 때, 최고 기록은 11.9초였다. 성장과 훈련을 통해 그는 힘을 길렀으며 시간을 단축시켰다. 현재 모로나이의 100미터 최고 기록은 10.46초로,

멕시코 청소년 기록 보유자이다.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트랙에서 더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더 잘 하려면 거기에는 그만큼의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라고 그는 말한다.

베냐민 왕은 이렇게도 말했다. “다시 이르노니, 사람이 상을 얻으려면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지라, 만사가 질서 안에서 행해지게 하라.”(모사이야서 4:27) 모로나이는 트랙 밖에서도 그 교훈을 잊지 않는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말한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과제를 주시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발전하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길입니다. 결국에는 희생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족 중에 있는 팬들

모로나이는 트랙 밖에서든 안에서든, 그가 시련을 겪을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그의 가족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의 지지에 감사하고 있다. 그의 가족은 모로나이가 얻는 모든 인기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가족 가운데 다른 식구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여긴다. 어쨌든 그들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 재능을 갖고 있다.

스무 살 된 누나인 조이시는 학교에서 늘 수석이었다. 19세 된 알바로 이세는 미술과 노래에 재능을 타고 났다. 14세 된 스티븐은 힘이 넘치고 달리기도 잘한다. 그리고 10세 된 마리안나는 “장차 사업을 잘할 것 같다.”라고 아버지 알바로는 말한다. “그들이 국내 최고는 아니지만, 어떤 분야에서든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모로나이는 그들을 존경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멕시코 프예블라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의 형 알바로 이세를 존경하고 있다.

“저는 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저는 늘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복음의 가르침이 없다면 제 인생은 훨씬 더 힘들 것입니다.”라고 모로나이는 말한다.

평화로운 복음의 준비로 신을 신고

모로나이는 트랙과 필드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발의 도움을 받은 것 이상으로 이제 자신의 발이 선교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달리기 선수로서 제가 하는 일이 주님께 중요하다고 믿지만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달리기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일은, 저의 운동 경력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상관없이, 제가 갖고 있는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단거리 선수인 모로나이는 “평화로운 복음의 준비로 신을 신” (교리와 성약 27:16)은 선교사 모로나이가 될 것이다.

모로나이는 경기용 신발을 전도용 신발로 바꾸어 신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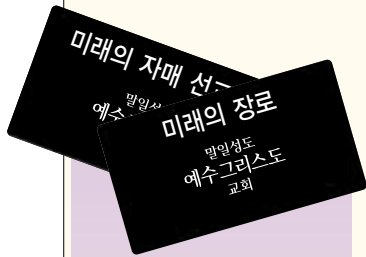


트랙에서의 모로나이의 탁월함은(아래 왼쪽) 어린 나이에 대중의 시선을 끌었으며(위) 경기용 신발을 전도용 신발로 바꾸어 신기도 전에 복음을 나눌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오른쪽: 트랙 경기 때의 사진, 루비오 가족의 허락을 받아 게재함

가장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됨



청 소년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내일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교회 잡지와 의 대답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와
칠십인 정원회의 찰스 디디에이 장로는
여러분이 “위대한 선교사 세대”¹가 되도록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여러분은 이미 그
가운데 일부를 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영의 속삭임에 순종한다

“영을 받지 못하면 가르치지 말라.”(고리와 성약
42:14)

위대한 선교사 세대가 성신의 인도를 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영을 지니는 것은 선교 사업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믿음을
나누고 교리를 설명할 수 있지만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은 영이기 때문이다.

“선교사는 영이 그에게 속삭여 줄 수 있도록
생활해야 합니다.”라고 스코트 장로는 교회 잡지
기자에게 말한다.

그러나 성신의 속삭임을 깨닫고 그 속삭임에
순종하는 일은 선교사 훈련원(MTC)에서

자동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험을 통해 가능하면 일찍 배워야 할 일들이다.

또한 우리는 성신의 속삭임에 불순종할 경우
죄를 짓게 되며 성신의 인도를 받는 능력이
감소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모사이야서 2:36;
힐라맨서 4:24 참조)

스코트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는 젊은 사람들은 가능한 한 죄의
영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며,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을 보장해 줍니다.”

실수를 범했을 때, 우리가 다시 영의 동반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지한 회개가 필요하다.
애석하게도 어떤 죄들은 여러분을 위대한 선교사
세대의 대열에 포함되지 못하게 한다.

스코트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젊은이들이
선교사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했을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것을 행했을 경우에는 선교



사업보다는 그들 자신들의 생활에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될 것입니다.”

말씀을 얻는다

“나의 말을 전파하려 힘쓰지 말고 먼저 나의 말을 얻으려 힘쓰라. 그리하면 네 혀가 풀리리라. 그러한 연후에야 내가 원하면 나의 영과 나의 말 곧 인간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11:21)

여러분은 “빈 샘에서는 물을 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물론 물이 없는 샘은 쓸모가 많지 않다.

그것은 선교사도 마찬가지이다. 할 말이 없는 선교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성신은 여러분이 스스로 경전을 공부하지 않을 경우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성구가 생각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계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계명으로부터 오는 축복에 대해 간증할 수 없을 것이다.

스코트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저 ‘난 단지

나가서 내가 할 일을 영이 말해 줄 때까지 기다릴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머리와 가슴에 복음, 특히 회복의 메시지를 저장해야 합니다.”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하기 전에 선교사들은 성경, 물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를 읽고 간증을 가져야 한다. 예비 선교사들은 속죄, 충만한 복음의 회복, 신권의 권능, 살아 계신 예언자, 그리고 계시를 받는 능력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찰스 디디에이 장로는 교회 잡지 기자에게 이렇게 설명한다.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우리는 말씀을 얻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11:21 참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얻는 일은 선교 지역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 사업은 해야 할 일이 많은 사업이므로 선교 지역에서 경전을 근거로 한 영적인 경험을 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경험은 개인 기도와 경전 공부, 복음 원리에 대한 순종, 그리고 교회 모임과 상호 향상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세미나리와 성구 익히기 프로그램은 복음을

영으로 가르치라



“복음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권세를 얻기 위한 단계로서, 처음에는 말씀을 얻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신을 통해

이해력을 얻게 되고 결국 확신시키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영을 구합니까? 주님은 ‘신앙의 기도로써’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참뜻을 가지고 성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을 강화시키도록 기도하시고, 가르칠 때에 영이

함께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물몬경에 나오는 이노스와 똑같은 마음과 열정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

“영을 구하기 위해 매일 경전을 상고해야 합니다. 물몬경에는 복음을 전파하려 나아갔던 가장 성공적인 선교사들에 속하는 모사이아의 네 아들, 즉 암몬, 아론, 음너, 힌나이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 스스로 준비했던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대관장, “성공적인 회원 선교 사업을 하는 열쇠”, *성도의 빛*, 1991년 4월호, 4~5쪽.





이해하는 데 값진 보조 도구가 된다.

“우리는 선교사들이 이미 그러한 준비를 갖추고 있어서, 아직 갖추지 못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보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원합니다.”라고 디디에이 장로는 말한다.

오늘부터 나누기 시작한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백성들에게 증거하며 경고하게 하노니, 이미 경고를 받은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을 경고할 책임이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88:81)

내일 복음을 나누는 일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오늘 그것을 나누는 것이다.

디디에이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편지 쓰기, 교회 비디오

나누기, 친구에게 전도용 카드 전하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우정 증진이나 활동 촉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선교 사업에 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선교 지역으로 나갈 때 그들은 이미 그런 일을 생각해 왔기 때문에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스콧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밖에 나가서 전임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더욱더 영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고 그런 일을 배우게 하는 또다른 방법이 됩니다. 선교사들과 함께 정원회 모임에서 혹은 친구들에게 가르치고 간증을 전함으로써 그들은 영의 인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준비를 하는 데 있어 훌륭한 경험이 됩니다.”

경고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일단 시작을 하고 나면 중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회 모임, 세미나리, 상호 향상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선교사에게 필요한 복음의 기초를 다지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친구들과 복음을 나눴으로써 선교 사업을 준비할 수 있다. 그 방법에는 편지 쓰기, 교회 비디오 나누기, 전도용 카드 전하기 등이 있다.

“선교 사업은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 열의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활기를 줍니다.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감동적인 경험입니다.”라고 스코트 장로는 말한다.

바라보아야 할 일들

“너희는 미리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끊임없이 너희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을 쌓아 두라. 그리하면 필요한 그 시각에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분량대로 말해야 할 말을 주시리라.”(교리와 성약

84:85)

교회는 선교 사업이 영으로 가르치고 개인의 필요 사항에 초점을 맞추는 일을 강조하도록 접근 방법을 수정하고 있다.

디디에이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토론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선교사들은 여전히 여섯 개의 토론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에게 바라는 것은 개인 공부 및 동반자 공부 시간에 내용을 요약하여 그날 가르칠 사람에게 맞도록 특별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세대



“이 시대는 ‘위험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인간의 영혼을 위해 싸웁니다. 적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며 냉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적은 놀라운 속도로 영원한 포로들을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혀 멈출 기세가 아닙니다.

“... 암몬 백성들이 레이맨들과의 전쟁에 지원군을 보내기 위해 자신들의 아들들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아론 신권을 지닌 어린 형제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힐라맨의 이천 용사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영의 아들들이며, 그분의 왕국을 세우고 방어하는 힘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힐라맨의 이천 용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성스러운 성약을 맺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순종하고 충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세대입니다. 우리는 ... 합당하고, 자격을 갖추고, 영적으로 양성한 선교사들을 필요로 합니다.

“... 우리는 영적으로 약하고 부분적인 헌신을 하는 젊은이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리만을 채우는 젊은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온 마음과 영혼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아는 웅맹스럽고, 사려 깊고, 열정적인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엠 러셀 벨라드 장로,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세대”,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46~47쪽



그림: 아놀드 프리에버그, 힐라맨의 이천 용사들

스코트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선교사들은 구도자의 필요 사항에 따라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구도자는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선교사들은 자신이 평소에 쓰는 말로 복음을 설명하고, 토론에서 복음 원리를 가르치는 순서를 수정할 수 있다는 권고를 받고 있다.

스코트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선교사들은 녹음기를 틀어놓듯이, 늘 주어진 한 가지 메시지만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본 교리와 참조 성구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자신의 경험과 연관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현재 선교사들은 회복의 메시지를 개인에게 전하는 데 있어 더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에서 선교사들은 어떻게 토론의 개요를 준비하는지, 어떻게 자신이 평소에 쓰는 말로 가르치고, 영으로 가르치는지를 자신의 모국어로 배우고 있다. 다른 언어를 배워야 하는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모국어로 토론 내용을 배우는 데 사용한다.

“그것은 선교사들이 선교 지역으로 갔을 때, 계속되는 언어 공부와 초기에 메시지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배운 것을 조정하는 데 있어 동반자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스코트 장로는 말한다.

여러분은 할 수 있다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대한 선교사 세대에 속할 수 있다. 거기에는 노력과 헌신이 요구된다. 신앙과 희생이 요구된다. 내일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세대가 된다는 것은 오늘 가장 위대한 청소년 세대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는 일이다.

스코트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놀라운 능력과 영적인 예민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지만, 복음을 가르치는 우리의 능력은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선교 지역으로 나아가 흥미롭고 놀라운 시간을 경험하게 될 잘 준비된 그룹의 일부가 될 것이며, 가족과 개인을 안전하게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려올 때, 영원히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

주

1. 엠 러셀 벨라드,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세대”,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46~49쪽 참조; 또한 고든 비 힝클리, “신권 형제들에게”,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56~59쪽 참조.



축복사의 축복에 대하여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 위해 여러분은 (1) 기도, 회개, 경전 공부 및 교회 참석 등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2) 여러분의 준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감독을 만나며, (3) 감독으로부터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 위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축복사의 축복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가? 왜 그것은 중요한가? 축복사의 축복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 몇 가지 대답을 소개한다.

많은 은 교회 회원들은 십대에 축복사의 축복을 받는 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다음 내용은 여러분이 축복사의 축복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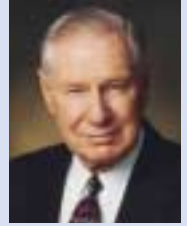
축복사의 축복은 무엇인가?

축복사의 축복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다. 첫째, 축복사는 영감을 받아 여러분의 혈통, 즉 여러분이 속한 이스라엘의 지파를 선언한다. 둘째, 축복사는 계시의 영의 인도를 받아 축복을

선언하고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약속, 주의 혹은 권고를 말해 준다. 축복사의 축복은 여러분이 신앙을 행사하고 의롭게 생활할 경우 성취할 수 있는 일들과 받을 수 있는 축복들을 알려 줄 수 있다.

혈통은 왜 중요한가?

교회의 모든 회원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하나에 속해 있다. 직계 후손이 아닌 사람들은 침례를 통해 이스라엘 가문에 “양자”로 입적된다. 열두 지파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것은 각 지파에 구체적으로 주어진 축복과 사명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자신의 혈통을 아는 것은 인생에서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각 지파의 머리)에게 준 축복들은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다.



따라야 할 지침

“성임 받은 축복사로부터 받은 축복은 우리를 인도할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시는 계시가 됩니다. 우리가 이 인도를 따를 때 실수하거나 잘못 인도되는 경우가 적어집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영혼의 닳이 되며,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하면 죽음이나 사탄도 우리에게 선포된 축복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신권 축복”,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63쪽

누가 축복사의 축복을 줄 수 있는가?

축복사는 멜기세덱 신권에 속하는 한 가지 직분으로서 장로나 대제사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축복사의 축복을 주도록 부름 받고 성임된다. 여러분은 자신이 속해 있는 스테이크의 축복사로부터, 혹은 스테이크에 축복사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축복사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의 스테이크에 축복사가 없을 경우, 감독이나 스테이크장은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방법을 알고 있다. 여러분이 축복사의 직계 자손일 경우에는 그가 여러분의 스테이크 내에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누가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합당한 모든 회원은 회원이 된 지 얼마가 되었든 상관없이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마땅히 받아야 한다.

몇 살 이상이 되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정해진 나이는 없다. 축복의 성스러운 특성을 이해할 정도면 된다.

축복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축복사는 여러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영감을 통해 축복을 준다. 그 축복은 여러분에게 계시된 지침이 될 것이다. 축복은 문서로 작성되어 여러분이 평생 공부할 수 있도록 사본이 주어진다. 교회는 여러분이 사본을 분실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 부를 보관한다.

어떻게 축복사의 축복을 받는가?

감독과 접견 약속을 한다. 감독은 여러분의 준비 사항과 합당성을 파악하여 추천서를 써 주거나 추천서를 받을 준비를 하도록 도와 줄 것이다. 추천서를 받고 나면 여러분은 축복사에게 연락하여 약속을 정한다. 축복을 받을 때 부모나 부모를



축복의 성취

“어떤 사람들은 축복사의 축복에 주어져 있는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는 것을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 그것은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 두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질을 가진 것들은 시간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전세의 존재로부터 죽음의 장막 너머의 존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영원합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스테인크 축복사”, 리야호나,
2002년 11월호, 45쪽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동행할 수 있는지 감독이나 축복사에게 알아본다. 약속한 날에 추천서를 가지고 간다.

어떻게 자신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아는가?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다는 소망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따라 생활하겠다는 소망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호기심이나 다른 사람의 강요는 축복을 받기 위한 올바른 동기가 되지 못한다. 감독은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 기도, 금식, 경전 공부, 명상, 그리고 회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신성한 준비를 위해 세상적인 것에 대한 걱정은 뒤로 미루어 놓아야 한다.

어떤 복장을 착용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안식일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축복문에 있는 약속들은 언제 성취되는가?

때로 축복사의 축복은 전세의 일부터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그것들은 현재와 미래의 생활을 위한 지침이다. 축복은 본질에 있어서 영원하기 때문에, 이 생이 끝난 다음에 실현될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다.

축복문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는가?

모든 축복은 여러분의 충실함과 주님의 시기에 달려 있다. 축복은 또한 여러분의 발전, 능력 및 상황에 따라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취될 수 있다.

축복문을 다른 사람이 읽어도 되는가?

축복문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개인적인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나 가까운 다른 사람과 축복문의 내용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축복문은 잘 보호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되어서는 안 된다.

축복사의 축복은 일생을 통해 큰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축복문에 있는 약속을 실현할 준비를 하고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이생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며 내세에서는 그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추천서를 받은 후에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4) 축복사에게 연락하여 만날 약속을 한다. (5) 축복을 받는다. 녹음된 축복은 (6) 글로 옮겨지게 되며, 사본들은 (7) 다음과 같이 우송된다. (8)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교회 본부로 보내고, 그리고 (9) 여러분에게 보내 일생 동안 지침이 되게 한다.

나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가?

감독실을 나와 복도를
걸고 있을 때, 감독님의
마지막 질문이 마음에
걸렸다.

추천서를 받기는 했지만 무엇인가 계속 나를 괴롭혔다. 오래 전에 한 일에 대해 정말로 용서를 받은 것일까? 감독님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레이첼 머독

스 테이크 축복사님이 말씀을 한 노년의 모임에 참석하고 나서, 나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는 일에 대해 몹시 기대하게 되었다.

축복사의 축복을 받으려면, 감독님과 접견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집행 서기에게 연락했으며, 그는 다음주 상호 향상 모임이 끝난 후에 감독님과 만나도록 약속 시간을 정해 주었다.

감독실을 향해 복도를 걸어가갈 때 교회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노크를 하자 감독님이 안으로 안내해 주셨다. 학교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 감독님은 도와 줄 일이 무엇인지 물으셨다. 그는 내가 축복사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다.

우리는 축복사의 축복에 관해, 그것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에 관해, 그리고 내가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 다음 감독님은 내 개인적인

합당성에 관해 질문하셨다. 지혜의 말씀을 지켰는가? 교회 모임에 참석했는가? 복음에 대해 간증을 갖고 있는가? 나는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감독님의 질문에 정직하게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그런 다음 감독님이 마지막 질문을 하셨다. “과거에 신권 지도자와 해결했어야 했지만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없다고 대답하고 추천서를 받은 뒤 감독실을 나셨다. 이제 축복사님과 약속을 할 준비가 된 것이다. 어두운 복도를 걸어나오면서 마지막 질문을 생각하자 마음이 무거워졌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가?

아주 어렸을 때 두어 번 친구 집에 놀러 갔던 때의 일이 생각났다. 나는 그곳에서 어떤 게임을 한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나는 그와 비슷한 어떤 일도 다시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게





감독님은 내게 더 이상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다. 두 번째로 감독실을 나와 걸으면서 나는 너무나 기뻐다.

사소하고 순진한 잘못에 대해 감독님에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망설여졌다. 나는 심각하게 잘못을 범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가 일생에서 오직 한 번 축복사의 축복을 받는다면, 나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 자신에게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감독실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러나 내가 그 일로 웃음 거리가 되거나 내 걱정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까봐 걱정이 되었다.

감독님은 내가 다시 온 것을 보고 놀라신 것 같았다. 나는 아주 빠르게 그리고 약간 애매하게 이야기를 설명했다. 감독님은 웃거나 내 걱정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다. 오히려, 감독님은 신중하게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따금 몇 가지 질문을 하신 다음 그 일에 대해 내가 개별적으로 주님께 회개했는지 물으셨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생각에는 자매님이 계획대로 축복을 받고,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두 번째로 감독실을 나서면서 깨끗해진 기분과 기쁨을 느꼈다. 복도를 뛰어나오면서 나는

공중을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이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 해 동안 지니고 다닌 꺼림칙한 느낌을 나의 신권 지도자 앞에서 깨끗하게 해결한 것이었다.

나는 그 깨끗한 느낌을 갖고 축복을 받기로 한 날 저녁 축복사님의 덕으로 갔다. 그 분이 “주님은 그대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방법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로 한 것을 기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울기 시작했다. 나는 참으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느꼈으며 내 생활이 불완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분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자신의 합당성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신권 지도자들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들은 내가 불완전하고 부족하더라도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며, 크든 작든 어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용서를 받을 때 훌륭한 기쁨을 느끼는 것만큼 그들도 행복함을 느낀다. ■

레이첼 머독은 위스콘신 매디슨 스테이크 제인스빌 와드 회원이다.

순종을 통해 느끼는 주님의 사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방문한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우리가 왜 그토록 행복한 사람들로 보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과 감사와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하는 아들과 딸들을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마음속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갖고 생활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해 어떤 질문을 합니까?”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72쪽)

여러분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대관장: “주님을 섬기는 일이 헛된 일이라고 생각될 때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약속을 믿고 이에 따르며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약속을 모두 실천하신다. ... 성실한 자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보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축복이 된다. ... 의로움에 따르는 지상에서의 축복이 아무리 크더라도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는 축복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용서가 낳는

기적[1969], 276~277쪽)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필요하게 됩니다. ... 그러나 구세주께 나아가고, 그분을 기다리겠다는 결심을 함으로써 하늘로부터 보호의 권세를 이끌어올 수 있습니다.”(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1997], 98쪽)

어떻게 순종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주었는가?

모사이아서 2:41: “...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축복을 받은 행복한 상태를 마음에 기억하라. ... 이들은 세상의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범사에 축복을 받으며, 이들이 끝까지 충실할진대 하늘에 영접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이 그치지 아니하는 곳에 거하리로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불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브리감 영 대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아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게 증거해



주는 영감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시의 영에 의해 압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 76쪽) 우리가 스스로 증거를 얻을 수 있다면, ... 우리는 무엇이 닥쳐오든 그것을 잘 처리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The Pathway of Discipleship”, Ensign, 1998년 9월, 7쪽)

수잔 더블류 테너, 본부 청년 회장: “매주 우리는 ‘항상 그를 생각하고 그의 계명을 지’ (교리와 성약 20:77 참조)하겠다는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고 우리의 영이 고무되고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확고한 신앙을 지니게 됩니다. ... 성약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 (니파이이서 31:20)을 느끼게 합니다.”(“우리의 성약 안에서 굳건함”,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101~102쪽)

요한복음 15:10: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



참으로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필요로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분의 딸들에게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보니 디 파킨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18 42년 3월 17일,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여성을 위한
주님의 조직인 상호부조회를 창립했습니다. 주님에게
있어 상호부조회는 참으로 중요한 조직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안전한
장소로서 여성들에게 상호부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자매들의 결속과 신권 지도자들이 주신 지침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상호부조회가
조직되던 그 당시나 오늘날에도 이보다 더 큰 명분은 없습니다.
상호부조회는 남성들이나 여성들이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이

조직은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설명하신 것처럼
 “여성과 남성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신성하게
 만들어지고, 신성하게
 승인되었으며, 신성하게
 설립되고, 신성하게
 제정”되었습니다. 주님의
 왕국 안에 그와 같은 가치를
 지닌 다른 여성 조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조직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상호부조회
 회원임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각 자매로서 상호부조회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상호부조회에 대해 느낀 바를 말하도록 부탁
 받은 80대의 한 자매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여성을 위한 신성하고 수준 높은
 배움의 장이 되어 왔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제가
 비록 대학 학위를 받았다고는 하나, 저는 가장 가치
 있고 뜻깊은 교육으로 저에게 영적 및 세상적인
 가르침을 주는 상호부조회를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상호부조회는 영원한 관점에서
 제 삶에 축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²
 연령에 관계없이 우리는 자신을
 상호부조회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조리 힝클리 자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필요로 하는지
 몰라요. 나이 많은 우리들에게는 젊은 여러분이
 필요해요. 젊은 여러분 또한 나이 많은 우리들의
 손길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성이 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우리에게는 깊고 확실한, 그리고
 성실한 우정이 필요해요.”³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상호부조회는 여성들이 서로

보살피며, 서로를 양육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서로의 간증을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는 안전한 장소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이신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우리에게 상호부조회의 목적과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주셨습니다.

“... 상호부조회를 그저 참석해야 할 하나의
 반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 그저
 상호부조회 반에 간다는 것보다는 상호부조회에
 속한다는 의식이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잡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패커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진지한 과제를 주셨습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상호부조회에 간다는
 생각에서 상호부조회에 속한다는 쪽으로 사고를
 바꾸셔야 합니다!”⁴

속한다는 것은 출석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개인으로서든 단체로서든
 상호부조회 자매로서 우리에게는 다음의 여섯 가지
 사항에서 차별성이 요구됩니다.

-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고 하나님
 왕국의 교리를 가르친다.
- 각 자매들의 거룩한 가치를 강조한다.
-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양육하고 사랑을 베푼다.
- 가족을 강화하고 보호한다.
- 각 자매들을 섬기고
 지원한다.



저는 상호부조회를
 사랑합니다! 상호부조회는
 저를 한 사람의 여인이
 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그동안 상호부조회에서
 친분을 맺어 온 여인들 ...
 이 계셨기에 오늘날 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

호부조회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발전시킬 수 있고
그리스도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 자매들이 신권의 축복을 온전히 받도록 돕는다.⁵ 이러한 것들이 상호부조회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위대한 목적과 사명을⁶ 보여 주며, 우리를 다른 모든 조직과 차별화되도록 규정짓습니다.

독신 성인 자매들의 헌신

우리 조직의 목적을 본보기로 보여 주고 보통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보여 준 한 상호부조회 자매님의 경험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던 이 독신 성인 자매는 운동장에서 한 무리의 일본 어린이들에게 둘러싸여 질문 공세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일본 애들이 더 좋아요, 미국 애들이 더 좋아요?” “초밥은 먹나요?” “농구는 영어로 뭐라고 해요?” 그 소란 속에서 그녀는 누군가가 자기 팔을 가볍게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안경을 끼고 머리를 짧아 내린 한 꼬마 여자 아이가 보였습니다. 그 자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허리를 굽혀 그 여자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사소한 질문이 있겠거니 하고 기다렸어요.” “그 꼬마가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가냘픈 목소리로 ‘선생님은 예수님을 아세요?’ 라고 물었을 때 주위의 모든 소란이 일시에 정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 그토록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놀라운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서 미소지으며 ‘그럼, 그럼,

난 예수님을 알고 있단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⁷

사랑하는 독신 성인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지식이 우리 자매들에게 필요한 명석함과 신선함과 활력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상호부조회의 회원임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구세주와 그분의 사업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나이 드신 자매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젊고 생기 발랄한 여성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영적인 풍요를 얻는답니다. 여러분의 그 넘치는 활기와 활력은 물론이고 내면의 강한 특성과 간증을 바탕으로 형성된 영적으로 성숙하고 힘찬 모습은 보기만 해도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⁸ 여러분은 우리의 기운을 북돋아 주며, 참으로 큰 신앙과 미래에 대한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니파이서서 31:20 참조) 이런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축복은 더하여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1942년, 상호부조회 100주년 기념식에서 대관장단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주님의 영감에 의하여 조직되었으므로, 전세계에서 유일하고 독특한 조직이라는 것을 한 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지상의 어떠한 여성 조직도 이렇게 시작된 것은 없습니다.”⁹

우리는 혹시 이 조직의 독특함과 신성함을 다소 잊어버리거나 않았는지, 또한 우리가 상호부조회 회원인 것에 대해 너무 무관심해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호부조회와 그곳에 속한 자매들을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주님은 초대 상호부조회 회장이었던 엠마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 일을 제쳐 놓고 그보다 나은 일을 간구하라.”(교리와 성약 25:10) 1830년에 주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현명한 말씀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에게 “우리의 여성들은 신앙을 강화시켜 주는 환경 속에서 서로 우정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호부조회의 사업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년 동안 상호부조회는 미국 여성 평의회(National Council of Women)의 일원이었습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 받았던 벨 스페포드 자매는 부름 받은 지 얼마 후, 조지 앨버트 스미스(1870~1951) 대관장님에게 그 모임을 위해 뉴욕에 가는 것은 돈도 많이 들고 얻을 게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대관장님은 [스페포드 자매]를 부드럽게 꾸짖으셨습니다.

‘자매님은 항상 무언가를 얻겠다는 관점으로 생각하십니까? 자매님이 뭔가를 주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¹⁰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상호부조회에 무엇을 가져다주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꺼이 나누겠습니까? 여러분은 상호부조회를, 일요일에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상호부조회가 얻는 곳일 뿐만 아니라 주는 곳이기도 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주는 것에 몰두한다면 사랑하는 우리 단체의 회원인 것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여하는 방법에 관한 일요 공과 토론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단순히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자매님에게 격려의 말이라도 한 마디 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에 충실히 참석하게 될 것이며, 방문 교육 메시지에 대해 토론할 때 주님의 진리에 대한 간증을 서로 나눔으로써 방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호부조회 회원이라는 사실에 두는 가치는 우리의 모든 언행에서 명백히 드러나야 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느 지역의 바느질 강좌에 참석한 한 자매는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수업을 하는 동안 어머니는 그냥 앉아만 계셨어요. 한 여자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마가렛,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군요’ 어머니는 잠깐 침묵하시다가 지난 며칠을 병원에서 어떻게 보냈는가에 대해, 또 자신의 등에 종양이 생긴 것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 방의 모든 여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어머니를 쳐다보았고 그들 중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마가렛, 당신을 위해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해야겠네요. 우리 중 절반이 교회 회원이 아니긴 하지만 같은 반원으로서 함께 기도할게요.’ 교사가 저를 보며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일들을 제쳐놓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로 돌려

메인화: 모렐 사진 촬영; 코네티컷 케이스 사진 촬영; 인복: 코네티컷 데이비드; 오른쪽: 허워드 포스트 그림
 맨안쪽: 모렐 사진 촬영; 코네티컷 케이스 사진 촬영; 인복: 코네티컷 데이비드; 오른쪽: 허워드 포스트 그림



우리가 상호부조회 회원이라는

사실에 두는 가치는 우리의 모든 언행에서 명백히 드러나야 합니다.

거룩한 도움을 간구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사는 잠깐 서 있다가 ‘할 수 있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¹¹

한 무리의 하나님의 딸들이 함께 모여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를 복돋아 주었습니다. 당연히 상호부조회 자매였던 그녀는 모두에게 금식 기도를 권유하면서 자신의 구세주에 대한 신앙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상호부조회에 헌신하십시오

저는 상호부조회를 사랑합니다! 상호부조회는 저를 한 사람의 여인이 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그동안 상호부조회에서 친분을 맺어 온 여인들, 특별히 저를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고, 믿어 주신 훌륭한 여인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인들 가운데는 우리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언니 포울린 쏘맨더가 있습니다. 포울린 언니가 60대일 때, 저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언니는 구세주에 대한 사랑으로 저를 강화시켰습니다. 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제가 간증을 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언니는 성신이 임하심을 느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부름에서 봉사할 때에는, 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얘기를 나누며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30대와 40대의 저에게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포울린 언니와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모두가 인정 받고, 친구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사랑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언니처럼 되고 싶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상호부조회에 헌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상호부조회에서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사업을 잘 준비하고 참여하며 지지하십시오. 서로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가르침과 토론을 통해 서로를 영적으로 고양시키십시오. 임무 지명을 받아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자비와 사랑을 보이십시오.

상호부조회는, 가족을 강화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의 성약을 소중히 하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거룩한 성약을 소중히 할 때 우리는 교회와 특정 조직의 일원이란 사실을 소중히 여기게 되며, 이 일은 곧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다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요! ■

주

1.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184쪽.
2. 개인 서한.
3.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저서, *Glimpses into the Life and Heart of Marjorie Pay Hinckley*(1999년), 254~255쪽.
4. “상호부조회”,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73쪽.
5. *교회 지침서 제2권: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 191쪽 참조.
6. “오 시온의 자매여”, 찬송가, 198장 참조.
7. 개인 서한.
8. 개인 서한.
9. 보이드 케이 패커, “한 무리가 된 자매들”, *성도의 벗*, 1981년 4월호, 188쪽.
10. 다음 저서에서 인용, Jill Mulvay Derr, Janath Russell Cannon, and Maureen Ursenbach Beecher, *Women of Covenant: The Story of Relief Society*(1992), 336쪽.
11. 개인 서한.



고난 중에 받는 위로

이혼 이후, 저는 자녀들과 함께
간단한 복음을 실천함으로써
위안을 얻었습니다.

콜린 엠 페이트

저의 성전 결혼은 18년 만에
별거와 뒤이은 이혼으로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제가 가족과 함께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살아 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 힘든 시기 동안, 그리스도 중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이 우리를 안전케 하고 보호해 주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복음의
실천이 어떻게 우리를 지원해 주고 위안을
주었는지, 어떻게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고
구세주의 사랑을 더욱 충만히 알게 해 주었는지,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일으키기도 했지만
일단 개회 찬송을
시작하고 나면 영을 느끼고 조용해지곤
했습니다.

가정의 밤이 가져오는 사랑의 기적

이혼 과정에서나 그 이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가정의 밤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족 모두가
원하던 원하지않든 상관없이 억지로라도 매주
“형식적”인 가정의 밤을 가졌습니다. 가끔 가족
구성원이 모임에 앞서 감정적인 논쟁이나 분란을





간 단한 복음의
실천을 통해
구세주께
의지함으로써 우리 삶의 매
순간, 매 시간, 매일을 위한
힘을 지속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밤 참여를 거절할 때에라도 자신의 방문을 열어 두어 아름다운 찬송과 기도와 경전 읽는 소리를 듣게 함으로써 이 거룩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폐회 찬송이 시작될 때쯤, 제가 피아노 의자에서 주변을 힐끗 살펴보면 종종 모든 자녀들이 함께 모여 앉아 있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의 권고에 따를 때만 오는 영의 증거 및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위안을 주는 음악의 힘

이 힘든 시기 동안, 저는 하루의 마지막을 피아노에 앉아 한 손으로 좋아하는 찬송가나 초등학교 노래를 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세주의 사랑”,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 사랑 느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및 그 밖의 많은 곡들을 치곤 했는데, 언제나 마지막 곡은 “낮도 다 간 이 저녁에”였습니다. 이와 같은 습관은 우리 가족에게 하나의 위안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하루가 어떤 날이었던 간에 엄마가 피아노 앞에 앉아 찬송가를 친다면 모든 것이 괜찮게 보일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견디기는 더 수월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했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집안으로 들여보내 놓고 차 안에 앉아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진정을 하고 기도한 후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들 중 한 곡의 부드러운 음률이 들려왔습니다. 건반 앞에 앉은 아들이 슬픔에 잠긴 저를 달래주고 위로해 주기 위해 찬송가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곡은 제가 그 아들과 딸들에게 정규적으로 쳐 주던 곡이었습니다.

생명의 닷인 경전

이 고난의 시기 동안, 경전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발전을 위한 생명의 닷이었습니다. 비록 매일 읽지는 않았지만 경전은 우리의 생활과 대화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논쟁과 갈등이 일 때, 우리는 경전에 의존했습니다. 느낌이나 관심사들을 토론한 후, 우리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정당함을 인정 받고,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경전의 한 구절이나 대회 말씀을 나누곤 했습니다. 우리의 닳아빠진 표준 경전들은 거의 우리 손과 마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어올 듯 잠자리에 눕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경전을 집어들어 펼쳤으나 도저히 집중해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종일을 학교며,



두 직장 일을 마치고 숙제까지 하고 나면 잠잘 시간은 보통 4시간뿐이어서 문자 그대로 힘이라곤 다 빠져 나간 상태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숙제를 끝마친 딸을 불러 놓고 경전을 읽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그 감미로운 봉사를 받는 시간은 참으로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딸이 읽은 구절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날 밤, 예전에 제가 그애에게 수없이 해주었던 그대로 저의 이불을 덮어 주던 딸애의 그 사랑과 다정함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단합

아침 저녁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는 우리 가족을 한 방안에 함께 있도록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함께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가족 간의 나쁜 감정을 잠재우고, 사랑을 표하며, 짐을 나누고, 하나의 가족으로서 세상에 맞서도록 단합하는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주님께 집중하도록 해주었으며, 한 가족으로서 힘을 모으게 해주었고, 우리의 힘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비록 가족이 개별적으로 그날 어떤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각자가 의심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지원하리라는 것을 알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서로 도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말없이 손을 마주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때의 기억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 이혼 법정에서의 소란이나 지불해야 할 고지서 등, 우리가 대처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기도한 후에는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강화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했으며 기도는 우리를 계속 지탱해 나가게 해주었습니다.

매 순간을 위한 힘

시련과 변화의 시기 동안, 끝까지 견디는 것은 하루하루, 매 시간, 매 순간을 견디는 문제가 됩니다. 다음에는 어떤 시련이, 그리고 어떤 변화가 닥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간단하지만 심오한 복음의 실천을 통해 구세주께 의지함으로써 우리 삶의 매 순간, 매 시간, 매일을 위한 힘을 지속적으로 발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콜린 엠 페이트는 유타 주 웨스트 밸리의 웨스트 밸리 제2와드의 회원이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었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카산드라 린 차이

청년 시절에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은 가족과 친구들뿐이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의 많은 부분을 잃게 되었다.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려 노력했기 때문에 친구들은 나를 놀려댔다. 학교 친구들은 절교를 선언했다. 부모님은 처음에 내가 침례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며 아버지는 말조차 건네시지 않았다. 어린 소녀로서 그런 개인적인 손실은 참으로 크나큰 희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교회와 왕국을 위한 이러한 “희생들”이 실제로는 손실이 아니라 이득을 가져다줄 것임을 알고 계셨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요한복음 12:24~25) 우리는 자신의 손실을 희생으로, 그리고 우리의 획득을 수익으로 정의하는 데 익숙하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손실이 실제로는 나중에 거두게 될 커다란 수확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한번은 한 유명한 의사가 낙심하여 의기 소침해 있는 노파를 방문했다. 그 의사는 노파가 고독하게 세상을 등지고 살고 있었으나 아름다운 온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노파는 그 곳에서 아프리카 제비꽃을 키우고 있었다. 그는 노파에게 처방전을 주었다. 그 처방전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회보를 구독해야 했고, 침례, 결혼, 질병, 또는 사망 등의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아프리카 제비꽃을 보내야 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그 노파는 수백 개의 화분을 선물로 주었다. 그녀가 사망했을 때 이런 머릿기사가 신문에 실렸다. “아프리카

제비꽃 여왕의 서거에 수천 명이 애도”. 무엇이 이 낙심한 노파를 변화시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었다.

때때로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소유물이 아니라 소중한 꿈이다. 타이완에서 자라나면서 나는 영국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려는 꿈을 갖고 있었다.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공부한 후에, 나는 집으로 돌아와 계속해서 영국에서 공부할 준비를 했다. 그 즈음에 상호부조회에서 부름을 받았다. 처음에는 잠시 동안만, 즉 영국으로 떠날 때까지만 그 부름에서 봉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 뒤 많은 생각 끝에 해외 유학을 일 년 정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에서의 학업을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해에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찾아왔다. 어느 날 교회의 게시판 곁을 지나가고 있을 때, 교회 번역부의 중국어 번역 과장 채용 공고를 보게 된 것이다. 지원해 보라고 성신이 강하게 속삭이는 것을 느꼈지만 망설여졌다. 한 해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영국으로 떠나야 할 때였다. 그러나 영은 나를 움직였고 나는 결국 지원을 하여 채용이 되었다.

내게 있어 교회의 번역 과장으로 일하는 것은 그저 평범한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커다란 특권이자 축복이었다. 그러나 만일 영국에서 공부하겠다는 꿈을 기꺼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지닌 한 알의 밀을 기꺼이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고 꼭 움켜쥐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저 단 한 알의 낱알로 남겨지게 하는 일을 범하고 있는가, 아니면 심고 키운 이 하나의 알곡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을 믿고 있는가? 친구들, 소유물, 또는 꿈을 포기하는 것은 확실히 하나의 시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신앙을 지니고 있다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닌 한 알의 밀을 자신 있게 심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

카산드라 린 차이는 타이완 타이페이 센트럴 스테이크 타이페이 제2와드의 회원이다.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믿으며 꿈을 기꺼이 포기하지 않았다더라면, 나는 결코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아버지를 위해 선교사를 찾아 보아라”

루이스 로베르토 라모스 데 사 필로

19 98년에 아버지께서는 중병을 앓게 되셨다. 이미 일 년 전 한쪽 다리의 무릎 바로 위 부분을 절단하신 일로 인해 혈액 순환 장애를 비롯한 엄청난 고통과 감염이 뒤따랐다. 결국 의사들은 대퇴골의 일부를 절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큰 걱정과 슬픔 속에서 여러 날을

보냈다.

나의 고향은 작은 마을이어서 그런 심각한 문제를 다룰 만한 의료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검사와 특수 치료를 받기 위해 누나가 살고 있던 브라질의 마릴리아에 있는 한 병원으로 가셨다. 하지만 차도가 전혀 없어 보이는 가운데 여러 날이 흘렀다. 나는 부모님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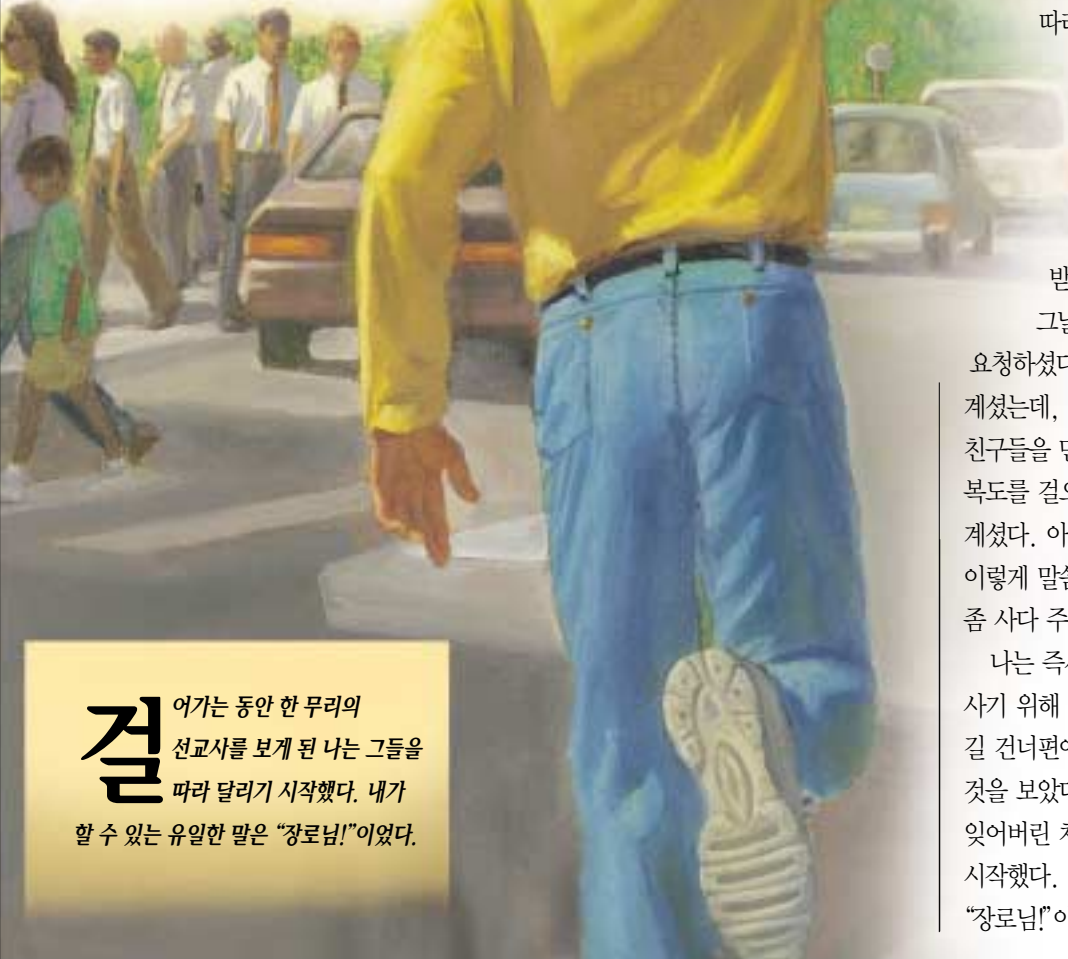
함께 마릴리아로 갔으며, 우리 모두는 서로를 강화시키고

위로하려고 애썼다.

부모님은 교회 회원이셨지만 나는 아니었다. 때때로 나는 교회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기도 했으며, 물론경의 참됨을 부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방문할 때마다, 아버지는 내게 오직 한 말씀만 하셨다. “루이스, 아버지를 위해 선교사를 찾아보아라! 내게 축복이 필요하구나.” 나는 선교사들을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다. 이제 시간이 점점 더 촉박해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수술을 받기 전날 나는 다시 한번 아버지를 방문했다. 그날 따라 우리는 더 불안했다. 우리는 치료가 별로 효과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고 다음날 아버지는 얼마나 더 많이 절단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X선 검사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날 아버지는 다른 것을 요청하셨다.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셨는데, 그날 아침에 수술을 받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병원 복도를 걸으시려고 의족을 착용하고 계셨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루이스야, 가서 물을 좀 사다 주겠니?”

나는 즉시 계단을 내려가 물 한 병을 사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걸어가는 동안 길 건너편에 선교사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물을 사는 것도 잊어버린 채 그들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장로님!”이었다. 그들이 걸음을 멈추자,



걸 어가는 동안 한 무리의 선교사를 보게 된 나는 그들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장로님!”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날 늦게 어머니와 내가 병원을 떠날 때, 우리는 알베즈 장로와 동반자가 아버지를 방문하러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는 선교부장님도 그곳에 오셨으며, 그토록 원하셨던 축복을 드디어 받았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다음날의 X선 검사 결과를 걱정하며 그날 밤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위안을 주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전화 벨 소리에 잠이 깨었다.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와서 나를 데리고 가거라. 퇴원을 해도 된다.” 아버지를 검사했던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는 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우리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지난 밤에 X선이 어떤 작용을 하여 선생님의 뼈가 거짓말처럼 다 나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물었다.

그날을 생각해 볼 때, 신권은 실재하며 또 그것이 다시 한번 지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더욱 실감하게 된다. 석 달이 지나지 않아 나는 간증을 얻어 침례를 받았다. 그 후 나는 브라질 리오테자네이로 노스 선교부에서 봉사하면서 내가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나의 간증과 사랑을 나누었다. ■

루이스 로베르토 라모스 데 사 필로는 브라질 보투카투 지방부 아바레 지부의 회원이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은 영구 교육 기금

김 시트랄필리 산체스 알다나 카마초

나는 의학에 관한 공부를 하겠다고 항상 꿈꾸어 왔다. 선교사로서 나는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행하기를 바라는 일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길을 항상 예비하신다는 것을 배웠다.

선교 사업에서 귀환한 직후 나는 종교 교육원에서 파비올라라는 자매를 만났다.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고 깊은 사랑에 빠졌다. 그녀에게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달라고 말해야 한다고 성신이 내게 속삭였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청혼을 했고 그녀는 받아들였다. 미래를 계획하면서 우리는 내 봉급만으로는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학업을 끝냈을 때 파비올라는 가족을 위해 한동안만 일을 계속 하겠다고 제안했다.

다 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 그들의 건강이 향상되었으며 그들은 즐거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고 우리는 아이를 갖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행하고 싶었던 것이다.

선교 사업 동안에 나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께서 영구 교육 기금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귀환 선교사로서 나는 종교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영구 교육 기금 프로그램에 관한 몇몇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어떤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희망이 생겼다. 나는 그것이 내 장애와 가족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파비올라와 함께 의논하고 학업에 관한 목표를 세웠다.



물리 치료를 공부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조금 기다렸다가 영구 교육 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당장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2001년 12월에 용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또한 그 달에, 즉 12월 22일에 파비올라와 함께 멕시코시티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내 용자 신청은 2002년 1월에 승인되었으며 나는 곧바로 학업을 시작했다.

학비를 내고 있던 어느 날 나는 학교 책임자를 만나게 되었다. 대화를 하면서 나는 교회 회원이라고 말하고 영구 교육 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는 몇 명의 말일성도를 알고 있으며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학교에 몇 명의 말일성도들이 다닌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달 동안 수업을 들은 후에 그 책임자는 수업량을 두 배로 늘려 24개월 대신에 14개월 만에 졸업할 것을 권유했다. 나는 용자금을 새로 신청하는 내년까지는 추가로 수업료를 낼 돈이 없다고 설명했으나, 그 책임자는 내가 말일성도이기 때문에 내겠다는 약속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렇게 나는 또 축복을 받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와 더 많은 수업 시간이 필요했지만 나는 계속해서 시간제 일자리를 유지하면서도 더 많은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학교에 다니면서 주님께서 내 지식을 늘려 주심으로써 나를 얼마나 크게 축복하셨는지를 깨닫고 너무 놀랐다. 실습의 일환으로 나는 등이나 척추에 문제가 있는 사람, 뺨 사람, 신경통 환자, 목 통증 환자를 도와 주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 그들의 건강이 향상되었으며 재활 치료를 통해 그들은

즐거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와드에서는 장로 정원희 회장으로 부름 받았다. 2003년 4월에 졸업할 때까지 나는 개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이수했으며 파비올라와 함께 첫째 아기를 기다렸다.

나는 주님께서 영구 교육 기금을 제정하셨으며, 우리가 자립하는 데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새로운 직장을 통해 나는 보다 나은 조건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하고, 대학교에서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다.

교회와 영구 교육 기금 프로그램 덕분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영감 받은 프로그램을 따르지만 한다면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

김 시트랄렐리 산체스 알다나 카마초는 멕시코 빌라데라스 플로레스 스테이크 라스 로사스 와드의 회원이다.

어둠 속에서 외롭게

트리사 마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실 것이라는 점을 깨닫기 위해 때때로 어려운 경험이 필요하다.(말사서 36:3 참조)

이 원리는 몇 년 전 우리 가족이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에 머물렀을 때,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그 곳에서 남편 키이스는 박사 학위 논문을 위해 연구를

했다.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으므로 학생들이었던 우리에게도 전화도 텔레비전도 없었다. 우리 집은 수도 튀니스의 교외 지역인 엘멘자에 소재한 아파트로, 5층에 있는 작은 보금자리에서의 일상 생활은 단순했다. 키이스가 국립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동안 나는 어린 아들 데이비드와 함께 집에 있었다.

튀니스에서는 우리 가족이 유일한 회원이었다. 일요일마다 남편이 성찬을 집행했고 우리는 경전을 읽었다. 좋아하는 찬송가를 부르고 대회 말씀이 담긴 테이프를 들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키이스의 신권회 교재에 있는 공과로 모임을 끝마쳤다.

비록 몇몇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기도 했지만, 외롭고 심지어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때도 있었다. 식료품을 산 후 집으로 돌아와, 전기가 끊어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가 그런 경우들 가운데 하나였다. 얇은 파란색 봉투가 문 아래 처박혀 있었으며 그 안에는 프랑스어와 아랍어로 적힌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키이스가 집에 도착하여 그 편지를 번역했다. 놀랍게도 먼저 살았던 임차인들이 전기 요금을 내지 않아 우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밀린 요금을 낼 때까지 전등도 사용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주말 내내 촛불을 사용했고, 월요일 아침에 버스를 타고 전기 회사로 갔다. 요금을 지불한 후 이틀 이내에 전기가 다시 공급될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정말 이틀이면 충분할까? 나는 키이스의 밤 수업이 화요일에 있다는 것이 생각났다. 그는 장학금을 계속 받기 위해

참석해야 했고, 그것은 데이비드와 내가 남편과 떨어져 집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조차도 떨어져 있는 것이 힘든 일인데, 결국은 데이비드와 내가 촛불 몇 개로 어둠 속에서 외롭게 있어야 한다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다.

월요일이 지나도 전기는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다. 화요일 오후에 키이스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전기 회사 사람들이 아직도 오지 않았음을 알았다. 우리는 몇 가지 선택에 대해 이야기했다. 결국 키이스가 이렇게 말했다.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도움을 간구했다. 기도를 마친 후, 키이스는 나를 껴안고 말했다. “모든 것이 다 잘될 거야.

밤이 될 때까지는 전등을 켜게 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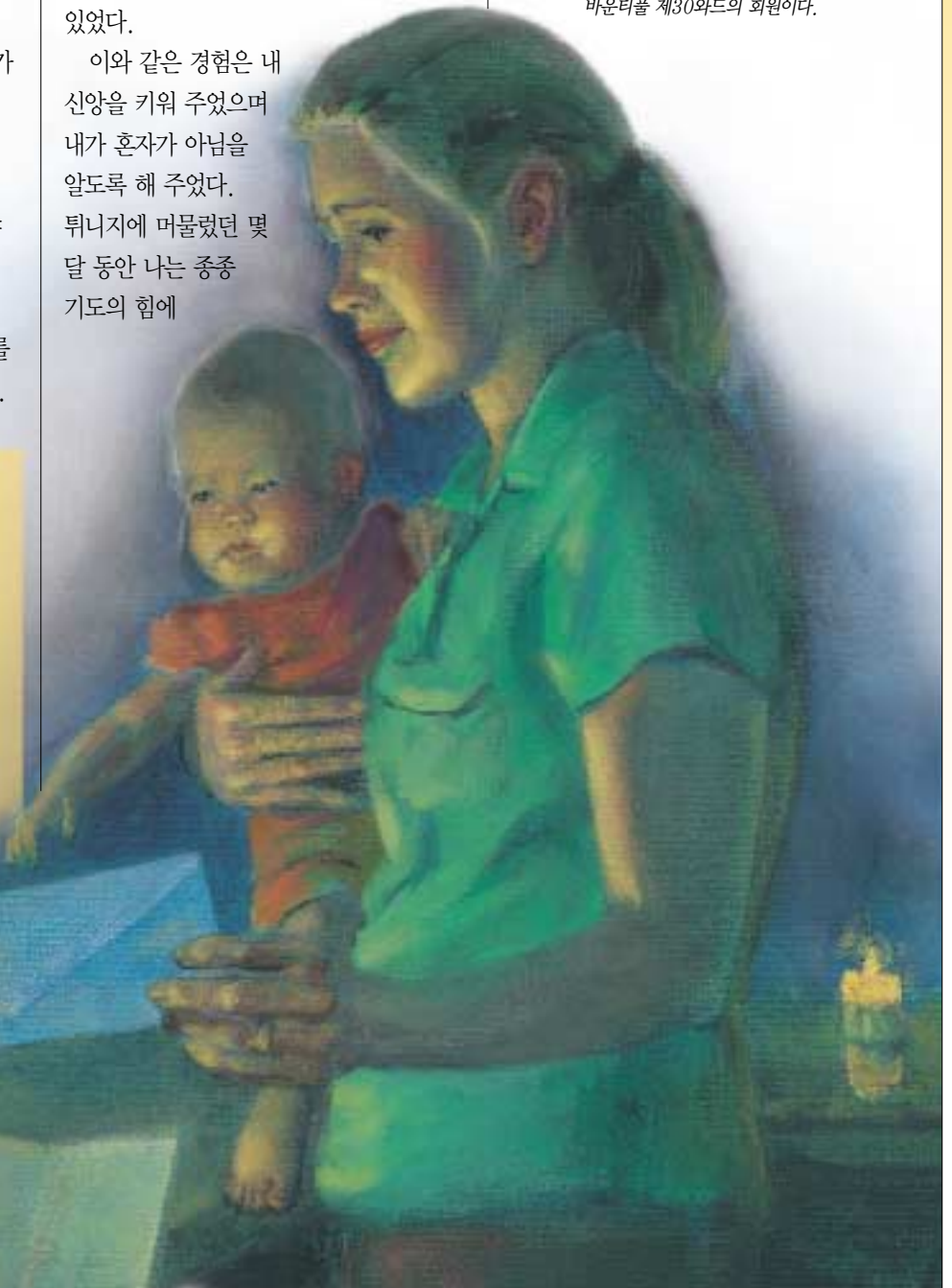
나는 불안했으나, 남편의 신앙에 의지했다. 하지만 오후 4시 45분까지도 내 마음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조용히 기도를 드리자 나는 다시 평화로운 확신을 느꼈다. 그런 뒤 4시 55분에 전기 회사 사람들이 도착해 전등을 켤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험은 내 신앙을 키워 주었으며 내가 혼자서 아님을 알도록 해주었다. 튀니지에 머물렀던 몇 달 동안 나는 종종 기도의 힘에

의지했다. 나를 돌보아 주시고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가족이 튀니지에서 가졌던 경험, 곧 신앙을 강화시키고 또 지금도 여전히 힘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경험에 대해 감사드린다. ■

트리샤 마틴은 유타 바운티풀 이스트 스테이크 바운티풀 제30와드의 회원이다.

집 으로 돌아와 전기가 끊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파란색 봉투가 문 아래 처박혀 있었으며 그 안에는 프랑스어와 아랍어로 적힌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성전 의식 참여를 권고 받는 사람들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1907~1995)
제14대 교회 대관장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계시들을 통해, 성전을 교회 회원들을 위한 중요한 상징으로 만드신 분은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말 일성도들이 세상에 선포하는 복음은 이 경륜의 시대에 지상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이 복음은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구원과 승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직접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필수 요건들 중의 하나가 바로 다른 장소에서는 집행될 수 없는 의식들을 집행하기 위해 성전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을 구경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오는 방문객들에게 이러한 점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받게 되는 질문은 “성전에서는 어떤 의식이 집행됩니까?”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종종 제일 먼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로 알려진 의식을 설명하여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고 말씀하셨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죽게 되면 주님의 면전에서 그 즉시 우리의 상태가 영원히 결정된다고 믿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의식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서는 과연 공의로우신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정답은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구세주의 말씀은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게도 침례가 행하여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말일의 예언자들은 침례가 살아 있는 사람에게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는 지상에서의 의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만이 이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를 주제로 하여 고린도 지방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1835년 가을의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그림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운데)가 말일의 첫 번째 성전인 커틀랜드 성전에서 창문 설치 작업을 하는 조셉 영과 브리감 영을 돕고 있다. 올리버 카우드리(왼쪽)와 시드니 리그돈(오른쪽)도 함께 성전의 준비를 돕고 있다.



다

큰 사람을 위해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단계는 자신의 조상들의
이름을 찾기 위한 가족 역사
탐구이며, 두 번째 단계는
살아 있는 사람들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기회를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 성전
의식을 집행하는 것이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고린도전서 15:29)

실제로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죽은 사람들을 위한 침례가 초기 기독교인들에 의해 실행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죽은 사람을 위한 대리 사업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리 사업은 우리에게 전혀 새롭거나 낯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세주께서 대리로 온 인류의 죄를 직접 속죄하셨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 있는 사람들이 다시 침례를 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성신의 은사를 부여하기 위한 안수례까지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들을 위한 이러한 의식들은 주님의 집에서만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에서 집행되는 또다른 의식으로 엔다우먼트가 있습니다. 이 의식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련의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엔다우먼트를 받는 사람이 맺는 약속, 즉 성약으로서, 의롭게 생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순종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엔다우먼트는 살아 있는 성도와 사망한 성도 모두에게 위대한

축복을 주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 또한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 있는 사람들에 의해 집행되는 의식으로, 이미 침례가 행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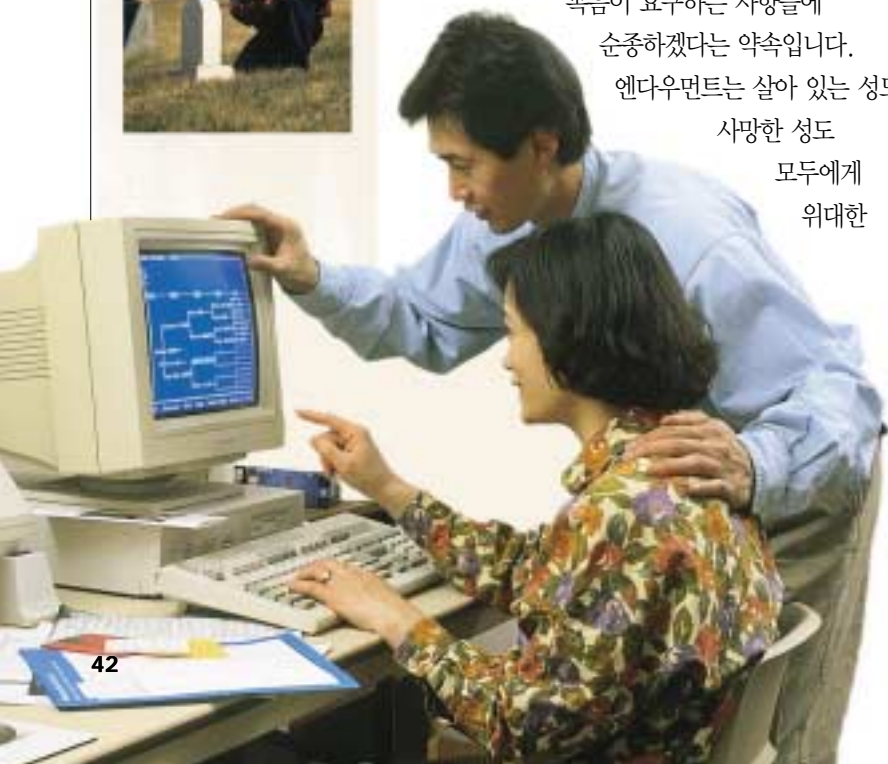
또다른 의식으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영원히 인봉되는 해의 왕국의 결혼 의식입니다. 우리는 일반 결혼이 죽음과 함께 끝을 맺지만, 성전에서 집행되는 영원한 결혼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결혼 이후에 남편과 아내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그 부모들에게 영원히 인봉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인봉되기 전에 자녀들이 태어났다면, 이들을 그 부모에게 영원히 인봉할 수 있는 성전 인봉 의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대리로 이미 돌아가신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인봉될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서의 의식을 통하여 가족의 기초가 영원히 인봉됩니다. 교회는 한 사회의 기반이 되는 가족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과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전 의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의 구원과 승영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37편은 커틀랜드 성전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시현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시현에서 요셉은 이 생을 떠난 그의 형 알빈과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 복음을 모르고 죽은 자로서 지상에 더 머물러 있었을진대 복음을 받아들였을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해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리라”(교리와 성약 137:7)고 말씀하셨습니다.

138편은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1838~1918)에게 주어진 성스러운 시현으로, 이 또한 죽은 사람의 구속 사업에 관한 기록입니다. 스미스 대관장께서는 베드로전서를 읽는 동안에 다음의 구절, 곧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리”(베드로전서 4:6)는 구절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영의 세계를 방문하신 것에 대해 상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시현이 스미스 대관장에게 열렸습니다. 그 시현은 13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미스 대관장은 “주님께서 악한 영들과 진리를 거부하고 순종치 아니한 영들을 가르치려 그들에게 친히 가지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보라, 그는 의로운 영들 중에서 택하여 그의 군대를 조직하시고 사자들을 임명하시어 그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부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진실로 모든 인간의

수행하여야 하며, 그 후에 살아 있는 동안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단계는 자신의 조상들의 이름을 찾기 위한 가족 역사 탐구이며, 두 번째 단계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기회를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 성전 의식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죽은 사람들은 말일성도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찾아 그들이 영의 세계에 있는 영옥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성전으로

성 전 침례반은
황소의 등 위에
놓여져 있는데,

이 황소들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상징한다.

오늘날, 침례는 죽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산
사람에 의해 이러한
침례반에서 집행된다.



성전에서 집행되는 의식들 가운데 하나는 엔다우먼트이다. 이 의식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련의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엔다우먼트를 받는 사람이 맺는 약속, 즉 성약으로서, 의롭게 생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순종하겠다는 약속이다.

영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도록 위임하셨나니, 복음은 이렇게 죽은 자에게 전파되었느니라.”(교리와 성약 138:29~30)

참으로 장막 이편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수행해야 할 위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성전 의식에 관해 위에서 말씀드린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세우는 일이 우리 자신과 인류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우리의 책임 또한 명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승영에 필요한 성전 의식 사업을

가서 의식을 집행하여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축복을 위해 성전으로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영화로운 일입니까? 우리 자신의 축복을 위해 성전으로 간 다음에, 우리보다 앞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사업을 행하는 것은 얼마나 영화로운 특권입니까? 성전 사업은 비이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성전 사업을 행할 때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성전 의식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 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놀라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회원임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상징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계시들을 통해, 성전을 교회 회원들을 위한 중요한 상징으로 만드신 분은 바로 주님 자신이십니다. 커틀랜드 성도들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셨던 권고의 말씀에서 주님이 언급하셨던 태도와 의로운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너희와 너희 주변을 정리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교리와 성약 88:119) 이러한 태도와 행동이 참으로 우리 각자가 소망하고 구하는 것을 잘 보여 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말일에 회복되기 전인 오랜 배도의 기간 동안 신대륙이나 구대륙에 성전이 건설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성전 의식에 있어서 필수적인 신권도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세움을 받은 주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설립된 후에, 신성한 계명에 따라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쿱키 장로(1915~1985)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감 받은 성전의 건립과 성전의 합당한 사용은 주님 사업이 신성함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계시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성전이 있는 곳에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없는 곳에는, 주님의 교회도, 왕국도, 그리고 하늘의 진리도 없습니다.”(Mormon Doctrine, 2nd ed. [1966], 781쪽)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전과 관련된 몇 가지 축복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 축복들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나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집을 지어 내게 바치며 더럽히지 않게 부정한 것을 일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나의 영광이 그 곳에 머물러 있으리라.

“참으로 내가 그 곳에 임하리니, 내가 그 안에 들어갈 것임이라. 그 안에 들어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두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나 더럽힘을 받으면 나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요, 따라서 나의 영광도 그 곳에 있지 아니하리니, 나는 거룩하지 아니한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제 보라, 만일 시온이 이 일을 행하면 번성할 것이요, 경계를 넓혀 심히 영화롭게 되며 심히 위대하게 되며 심히 두렵게 되리라.

“제사의 국민들은 시온을 존경하여 이르기를, 분명히 시온은 우리 하나님의 도시라, 반드시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 자리가 옮기지도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 곳에 계시며 주의 손이 그 곳에 계심이라.

“또 주는 권세 있는 능력으로 시온의 구원이 되며 시온의 높은 탑이 되리라 맹세하셨도다 하리라

“그러므로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시온은 기뻐하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곧 시온이니라. 그러므로 시온은 기뻐하라.”(교리와 성약 97:15~21)

백성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입니까! 개인으로서, 가족으로서, 주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로 알려진 사람들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상징은 어떠합니까!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커틀랜드 성전에서 계시를 받아 행한 그 위대한 헌납 기도에서의 훌륭한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도록 주님께서 주신 신권의 권세에 의해 우리들 개인에게, 가족에게, 한 백성에게 끊임없이 응답되어진 기도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당신의 은혜로써 당신의 백성된 우리를 도우사 ... 당신께서 주신 계시 가운데에서 당신의 백성 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분명히 성취시키기 위하여 당신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영광이 당신의 백성 위에 있게 하시며 ...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께 비옵나니,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이 집에서 나아가며 당신의 이름을 받들며 당신의 영광이 저들을 둘러싸며 당신의 천사가 저들을 지키게 하시며,

“저들이 이곳으로부터 진리 안에서 심히 크고 영화로운 소식을 땅 끝까지 전파하게 하시고 이것이 당신의 사업임을 알게 하시며 당신께서 손을 펴시사 마지막 날에 관하여 당신께서 예언자의 입을 빌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당신께 비옵나니, 당신께서 지정하신 이 스테이크 외에 다른 스테이크를 시온에 이룩하게 하사 당신의 백성의 집합이 큰 권세와 위풍을 가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당신의 사업이 의롭게 조속히 완수되게 하옵소서. ...

“땅 끝까지 쫓겨나 흩어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모두 진리를 알게 되고 메시아를 믿어 압박에서 벗어나 당신 앞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당신의 모든 교회 회원과 그들의 모든 가족과 직접적인 연고가 있는 모든 자와 고통을 당하는 자와 세상에서 온유한 자를 기억하시고 당신께서 손대지 아니하시고 세우신 왕국이 태산이 되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

“죽은 자를 위하여 나팔이 울릴 때에 우리가 당신을 맞이하러 구름 가운데 붙들려 올라가 주와 함께 지낼 수 있게 하옵소서.”(교리와 성약 109:10~12, 22~23, 59, 67, 72, 75)

지금까지 것처럼 감동적이고 훌륭한 언약을 받은

민족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 그분의 성전으로 향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거룩한 집에서 “나는 자비를 베풀어 ... 나의 백성에게 모습을 나타내리라.”(교리와 성약 110:7)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죽은 자를 구속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거룩한 성전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성전 의식이 절대적으로 중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진실로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성전을 사랑하고 자주 방문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 소망합니다. 저는 성전까지의 거리가 멀어 곧바로 또는 자주 방문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성인 회원들이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전에 자주 참석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백성이 됩시다. 우리 모두 시간과 재정과 개인적인 사정이 허락하는 한 자주 성전에 갑시다. 우리의 돌아가신 친족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성전 예배를 통해 개인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즉

우리 모두 성전에 자주 참석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백성이 됩시다.
우리 모두 시간과 재정과 개인적인 사정이 허락하는 한 자주 성전에 갑시다.
우리의 돌아가신 친족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성전 예배를 통해 개인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즉 거룩하고 성결한 성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신성함과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도 성전에 갑시다.

우

리가 성전에서
가졌던 영적인
느낌을 우리의
자녀들과 나누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집의
목적에 관하여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보다
열심히 또 보다 편안하게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전 사진을 비치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거룩하고 성결한 성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신성함과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도 성전에 갑시다.
성전은 아름다운 장소요, 계시의 장소이며, 평화의
장소입니다. 성전은 주님께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 우리에게도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가졌던 영적인 느낌을 우리의
자녀들과 나누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집의 목적에 관하여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보다 열심히 또 보다 편안하게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전 사진을
비치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들에게 주님의 집의 목적에 관하여
가르치십시오.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성전으로
가며 또 그 축복을 받기에 계속해서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게 하십시오.

우리의 청소년들이 합당하게 성전에 가서 생전에
침례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 대리
침례를 받을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합당한 상태에서 성전에 참석하여 주님과
개인적으로 성약을 맺고 부부 인봉과 가족 인봉을
받을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합당하게 성전에 가서 돌아가신 분들, 바로 자신을
대신해 누군가 의식을 받아 주길
애타게 기다려 온 많은 분들을
위해 그와 같은 구원의 의식을
받을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정말로 성전이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을 우리를 위한 최고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고 평생토록 변함없이 충실하게
생활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동과 믿음에 관한
유일하고 성스러운 표준에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학생이든지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된 사람이든지,
모든 일을 완전히 혼자 하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든지, 우리의 나이갈
길은 분명할 것이며 우리의 표준도 명확할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원리를 지키고 자신의 신념에
충실할 수 있는 능력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생활에서,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모든 곳에서, 참된
원리를 지키기 위해 전심 전력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 가운데 우리가 참되다고 알고 있는
원리들을 온 영혼을 다하여 깊이 간직하며,
영원토록 소중하게 지닐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원리에 충실하고 참되면, 우리는
언제나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될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성전은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 될 것입니다. ■
원문은, 성도의 빛, 1994년 11월호, 2~7쪽을 참조.



대관장단 서한

대관장단은 성찬식에서 낭독하도록 2003년 3월 11일자로
신권 지도자에게 다음의 서한을 보냈다.

“**전** 세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성전 수가 증가한 것에
감사드리며, 성인 회원들은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받아 좀더 자주
성전을 방문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간과 사정이 허락하는대로, 회원들은

여가 활동 대신 성전을 방문하시도록
권고합니다.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성전 의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 지상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특히 새로운 교회 회원들과 12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합당하게 생활하여
침례와 확인을 위한 대리인으로
봉사함으로써 이 위대한 사업을
돕기를 권고드립니다.

“지역 신권 지도자들은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회원들에게 낮에 좀더

자주 성전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들은 특히 낮에
교통편이 필요한 회원들을 위해 교통편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들은
인간 영혼의 불멸성에 관한 중요한 기본적
교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참석을 위해
우리의 노력과 충실함을 배가할 때,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



배부 센터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전(물품 번호 35863 320)이 여러 언어로 나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책자는 성전과 그 중요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교회 회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도울 수 있고 또한 회원들이 처음으로 성전에 참석하여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의식을 받기 위해 준비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주문 및 가격에 관해서는 지역 배부 센터 또는 여러분의 워드나 지부 지도자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십니까?



3월에 일어난 일

다음은 교회 역사에서 3월에 일어났던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다.

1830년 3월

26일: 뉴욕 주, 팔마이라에서 이 비그랜디가 몰몬경 초판의 첫 권을 인쇄함으로써 몰몬경이 일반인에게 선보였다.

1842년 3월 17일: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상호부조회를 조직했다.

말일의 예언자들의 침례

말일성도 집회소에 있는 침례탕에서 침례 받은 말일의 첫 번째 교회 대관장이 고든 비헝클리 대관장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솔트레이크 리버티 스테이크의 제1와드에서 1919년 4월 28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14명의 다른 대관장들의 침례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 몇 가지가 아래에 있습니다.

교회 대관장	침례 일자	침례 장소
요셉 스미스	1829년 5월 15일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 근처의 사스케하나 강
브리감 영	1832년 4월 14일	뉴욕 주, 멘든 근처의 방앗간 연못
존 테일러	1836년 5월 9일	캐나다 온타리오 주, 토론토 근처의 시냇물
윌포드 우드럽	1833년 12월 31일	뉴욕 주, 리치랜드 근처의 얼어붙은 시냇물
로렌조 스노우	1836년 6월 19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샤그린 강
조셉 에프 스미스	1852년 5월 21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시티 크리크
히버 제이 그랜트	1864년 6월 2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마차의 물 탱크
조지 앨버트 스미스	1878년 6월 6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시티 크리크
데이비드 오 맥케이	1881년 9월 8일	유타 주, 헌츠빌 근처의 스프링 크리크
조셉 필딩 스미스	1884년 7월 19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시티 크리크로 추정
해롤드 비리	1907년 6월 9일	아이다호 주, 클리프톤 근처의 바이비 폰드
스펜서 더블류 김볼	1903년 3월 28일	애리조나 주, 태처에서 돼지를 도축할 때 털을 뽑기 위해 사용되는 더운 물통. 그는 물통 침례의 적법성에 관한 우려 때문에 훗날 애리조나 주, 태처의 유니온 카نال에서 침례를 받았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1907년 8월 4일	아이다호 주, 휘트니, 로간 리버 카نال
하워드 더블류 헌터	1920년 4월 4일	아이다호 주, 보이시, 실내 수영장

하워드 더블류 헌터, 스펜서 더블류 김볼, 고든 비헝클리,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소년 시절 사진 말일성도 교회 기록 보관소 제공; 인쇄 조판을 하는 그랜디의 모형 사진: 상호부조회의 조직, 대일 김볼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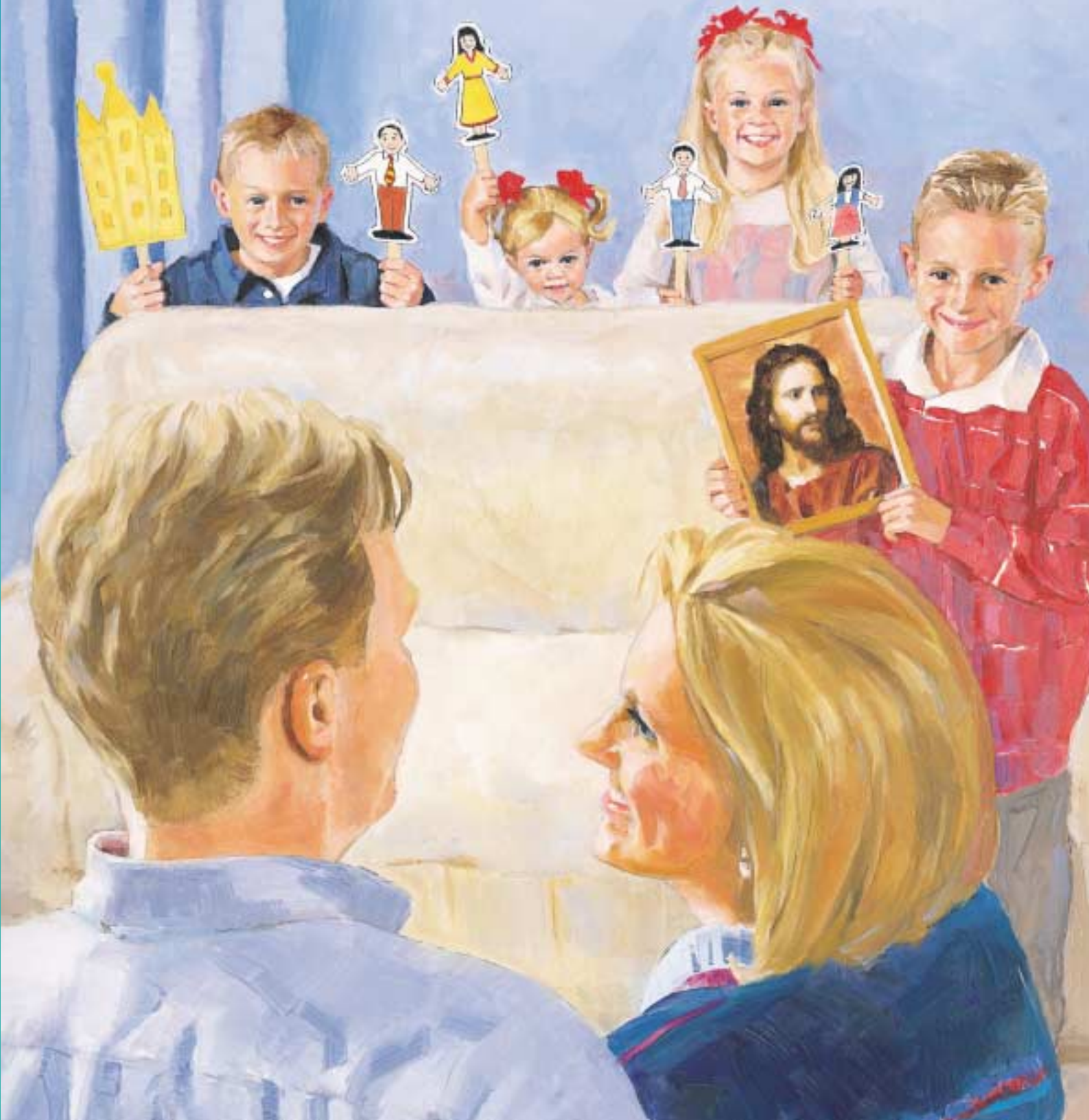


지도자에게 주는 조언

고든 비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여러분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가 표방하는 그런 대의 안에서 이 교회 회원으로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 마십시오. ...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사악한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의 적은 노력하려는 여러분을 망설이도록 꾀합니다. 두려움을 던져 버리고 진리와 의와 신앙이란 대의 명분으로 용기를 내십시오.”(“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리아호나, 1998년 6월호, 26쪽)

친구들



악서 예언자의
음성을 들으라

봄 청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힝클리 대관장은 깨끗하게
되는 기쁨을 알 것을
권유하고 있다.

제가 어려서 솔트레이크시티에 살고 있었을 때 대부분의 가정은 석탄 난로를 이용해 난방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굴뚝이 검은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겨울이 끝날 때쯤이면 검댕과 매연이 온 집 안팎에 가득했습니다.

그로 인해 매년 우리가 치러야 할 일종의 의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의례에는 가족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이 의례를 우리는 봄 청소라고 불렀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날이 따뜻해지면 일주일 정도를 청소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봄 청소 기간 중에는 한 번의 공휴일과 두 번의 토요일이 끼어 있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봄 청소의 책임자였습니다. 집안의 모든 커튼을 걸어 내려서 세탁한 후 조심스럽게 다림질했습니다. 유리창도 안팎으로 닦았습니다. 큰 이층 집이었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벽마다 벽지로 도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벽지를 깨끗하게 해 주는 물질이 든 여러 개의 깡통을 집으로 가져오시곤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빵 반죽 같았으나 깡통 뚜껑을 열면 분홍색을 띤 아름다운 반죽이었습니다. 이





반죽에서는 흥미로운 향이 낮는데 참으로 유쾌하고 신선한 냄새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달려들어 도왔습니다. 우리는 이 반죽을 뜯어 손으로 주무른 다음 사다리에 올라가 천장부터 시작해 벽으로 옮겨 일을 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이 반죽이 벽지로부터 숲 검댕을 들어내면 반죽은 시꺼멓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피곤한 일이었으나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더러운 벽과 깨끗한 벽을 비교해 보곤 했습니다. 깨끗한 벽이 얼마나 더 나아 보였는지, 그 일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카펫도 다 걷어내 마당으로 끌고 가 빨랫줄에 하나하나 널었습니다. 우리 형제들 한 명 한 명에게 카펫을 때리는 도구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나무 손잡이가 달린 가벼운 쇠막대기였습니다. 카펫을 두들기면 먼지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먼지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카펫을 두들겼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이게 되면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집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나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이사야 1:16)

우리의 신체는 성스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랍고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술을 피하십시오. 마약의 뒷에 걸려 들지 마십시오. 마약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체를 보다 잘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정한 생각은 부정한 행동을 낳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취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또한 주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라.”(교리와 성약 121:45)

여러분은 부도덕한 행위라는 사악한 뒷에 걸릴 수도 없으며 걸려서도 안 됩니다.

깨끗한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요즘 세상에는 더럽고 추악한 말이 많습니다.

의복과 행동에 있어서도 깨끗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예절 바르고 공손하고 정직하며 성실한 젊은이가 되기를 권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걸으며 하나님의 미소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

1996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다시 깨끗하게 되는 방법

실라 이 율슨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어느 날 링컨의 친구들이 학교에 있는 연필 판매기에 돈을 넣은 착한 적이 있었다고 링컨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돈을 넣었지만 연필이 나오지 않았다고 학교 여직원에게 거짓말을 했고 여직원은 그들에게 연필 한 자루를 주었습니다. 링컨도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링컨은 벤치에 앉아서 자신이 공짜로 얻은 연필 한 자루를 바라보았습니다. 매우 슬픈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옳은 일을 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일을 여직원에게 말하고는 연필을 돌려주었습니다. 링컨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잘못된 어떤 일을 행하고서 그것을 바로잡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돌아와서 그분과 함께 살기를 바라시지만, 깨끗하지 못한 어떤 사람도 그분과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모세서 6:57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실수할 것을 알고 계시며, 따라서 다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겻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분께서 고난을 겪으셨기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고리와 성약 19:16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고난으로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역할을 다했을 때, 우리는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모빌 활동

1. 친5쪽을 두꺼운 종이에 붙인 다음 조심스럽게 모빌 조각을 잘라낸다.
2. 네모 조각의 뒷면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그리거나 사진을 풀로 붙인다.
3. 점선을 따라 접고 두 개의 타원형 조각의 뒷면을 함께 풀로 붙이고 지정된 곳에 구멍을 뚫는다.

4. 끈을 사용하여 각 조각을 연결한다.(그림 참조) 맨 위에 고리를 붙인 다음 아래에 매듭을 만든다.
5. 구세주의 그림 아래에 열거된 성구를 하루에 하나씩 읽는다.

함께 나누는 시간 제안

1. 낱말 스트립 위에 신앙개조 제3조의 낱말들을 적는다. “속죄”라고 적혀 있는 낱말 스트립을 빼놓고서 다른 낱말 스트립들을 그릇된 순서로 붙여 놓는다. 구세주에 관한 노래 또는 찬송가를 부른다. 신앙개조 제3조를 살펴본다. 낱말 스트립들을 전시해 놓고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난처하게 행동한다. 여러분에게 어린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반주자가 부드럽게 연주하는 동안, 문장을 올바른 순서로 고쳐 놓기 위해 두 개의 낱말 스트립을 바꾸게 한다. 문장이 “속죄” 낱말 스트립을 제외하고는 완성되었을 때, 아직도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다고 어린이들에게 말한다. “속죄” 낱말 스트립을 넣는다. 신앙개조를 함께 읽는다. 어떤 일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경험에 적용해 본다. 속죄가 어떻게 어린이들의 생활에 축복을 주는지 이야기하게 한다.

2. 다음 성구가 안에 담겨 있는 다섯 개의 상자 또는 봉투를 전시한다. (1) 모시아야서 3:16; (2) 마태복음 9:35; (3) 요한복음 13:15; (4) 니파이서서 9:21; (5) 야곱서 4:11. 어린이들이 매우 귀중한 물건을 우연히 깨뜨린 것처럼 하게 한다. 어떤 느낌이 들 것인가? 그 값을 치를 수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육신의 아버지과 어머니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와 줄 것이라고 설명한다. 여러분이 정말로 후회하고, 순종하며, 여러분이 치를 수 있는 만큼을 낸다면, 부모님께서 그 차액을 냐으로써 여러분을 도와 줄 것이라고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한다. 우리가 계명을 어겼을 때, 우리에게도 도움을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대가를 치루셨으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 칠판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그 이유”라고 적는다. 다음 글에 대해 말하고 열거한다. (1) 그분은 아담의 죄를 속죄하셨으며 따라서 어린이들은 구원 받을 수 있다. (2)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며 따라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다. (3)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 주셨으며 따라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4)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겪으셨으며 따라서 우리는 용서 받을 수 있다. (5) 그분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으며 따라서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 어린이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이 상자 또는 봉투 하나씩을 열고 성구를 열거된 문장 하나와 짝짓게 한다. ●

신화: 토마스 에스 차일드; 그림: 해리 헨리슨; 제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내가 곧 길ियो”
(요한복음 14:6)

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यो”
(요한복음 14:6)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저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삽화

야생화와 기도



게일 엠 클레그 자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2보좌



클레그 자매는
여러분이 때때로
외롭다고 느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비록
여러분이 그분을 볼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가까이에 계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은 외로움을 느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딸아이 티나가 여섯
살이었을 때 우리 가족은 브라질로
갔습니다. 식구 중에서 포르투갈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특히 티나가 그 언어를
배우는 것을 힘들어 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1학년으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네 살짜리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티나가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끼고
포르투갈어도 더 잘 배우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우리 티나가 낯설었던
것처럼 티나 역시 다른 아이들이 낯설었습니다.
티나에게는 매일매일이 힘들었으며, 딸아이는
매일 매우 슬픈 표정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몇 명의 아이들이 제 딸에게 특히 더
불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몇몇
어린이들은 티나를 못살게 굴고 비웃으며 돌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티나는 겁을 먹고 마음에
상처를 입어 교실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작정했습니다.

텅 빈 운동장에 앉아 있는 동안 그 아이는
우리가 외로움에 대해 가르쳐 주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아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자녀들의 곁에 가까이 계시며 언제나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이의 마음속의 언어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운동장 한 구석에서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티나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엄마가 와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초등학교 노래 하나가 딸아이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크로바 풀밭에서 산보하면서
한아름 파랑꽃 따서 모아요
온 들 위의 꽃들을 따서 모아요
꽃을 보면 어머니 생각나요
("크로바 풀밭에서", 어린이 노래책, 109쪽)*

티나가 눈을 떴을 때, 콘크리트 틈에서
자라나고 있는 조그만 꽃 한 송이가 보였습니다.
아이의 꽃을 따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의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그
아이의 부모가 자신과 함께 있다고 느끼면서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도 때때로 외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배우면서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불친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는
없을지라도 그분은 항상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외롭거나 두렵다고 느낄 때 그분께 기도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마치 외로웠던 그날에
티나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 그분의 영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2002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수정 발췌



회개와 속죄

하 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필멸의 존재로서 온전할 수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온전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택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데리인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님은 매우 큰 돈을 빌렸던 한 사람에게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위해 왔던 어떤 것을

샀습니다. 그러나 값을 시기가 다가왔을 때, 그는 값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채권자가 빛 대신에 자신의 소유물을 가져가고 또 자신을 감옥에 가둘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친구가 그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빛을 값어 준다면, 나를 당신의 채권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친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게 빛을 값으면 되고 조건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조건이 쉽지는 않겠지만 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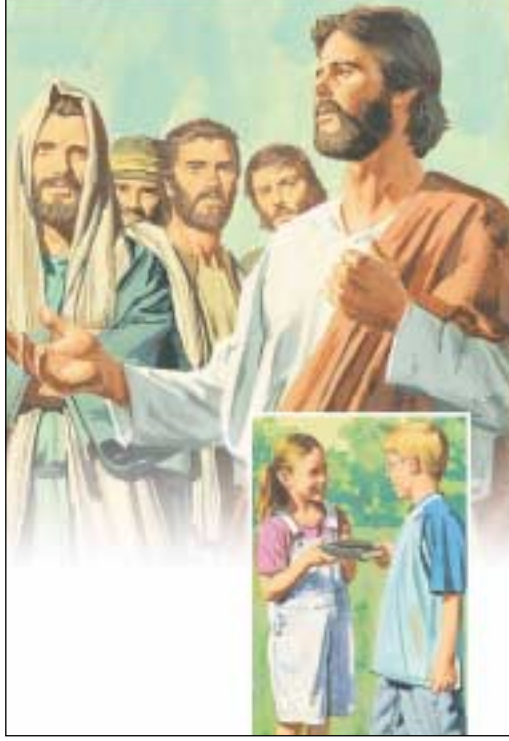
친구는 빛을 값을 능력이 있었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에게 정당하게 빌려 주었던 돈을 받았습니니다. 그 덕분에 그 사람은 감옥에 가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중재자”,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54~56쪽)

이 이야기에 나오는 친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빛”을 값어 주시겠다고 제의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망을 이기셨으며 따라서 우리 모두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으며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교리와 성약 19:16 참조) 그 대가로 그분은 우리가 어떤 “조건” 또는 규칙, 즉 회개하고 계명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

가정의 밤 활동 및 제언

1.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실션을 따라 두 쪽을 잘라 낸다. 소재자로 만들기 위해 접는다.(그림 참조)
2. 가정의 밤이나 초등학교에서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의 그림을 사용하여 그분의 생애에 관해 말한다. 현대의 어린이들의 그림을 사용하여 우리가 구세주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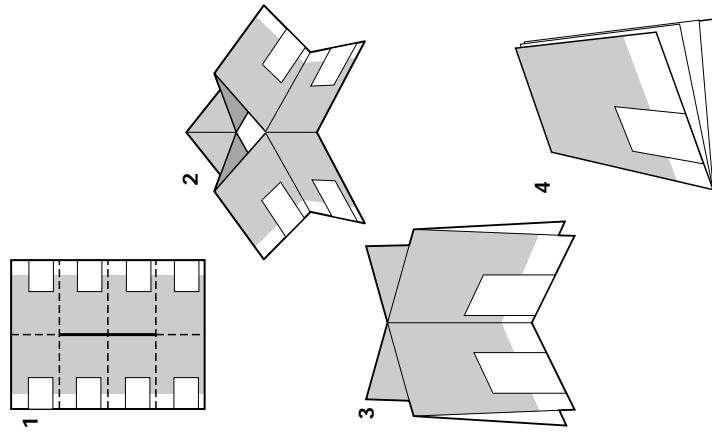


3. 가정의 밤 활동을 위해

여러분이 만든 소책자에 있는 각각의 그림에 관해 토론한다. 그런 다음 종이를 잘라내어 접어서 각 식구가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소책자를 만들게 한다. 각 식구가 구세주를 파를 수 있는 방법에 관해 각 페이지에 적거나 그림을 그리게 한다. (예를 들어 경전 읽기, 교회 참석, 또는 다른 사람을 도움 등)



그림



간증의 시작



현재 동남 아프리카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하고 계신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와의 대화에서 발췌; 힐러리 엠 헨드릭스 자매님 제공

“또 성령[성신]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린도전서 12:3)

저는 유타 주 세인트 조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저희 선조들이 1861년에 정착한 곳이기도 합니다.

브리감 영이 대관장님이실 때 저의 고조 할아버지의 아버지셨던 에라스터스 스노우는 사도이셨습니다. 저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종종 개척자들과 그들의 희생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분들은 제가 저희 가족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며, 올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드라이 클리닝 세탁소를 운영하셨으며, 저는 다섯 살 무렵부터 아버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닥을 쓸고 바지들을 걸기 위한 옷걸이들을 준비했습니다. 세인트 조지의 여름은 종종 섭씨 38도를 웃돌았습니다. 8월에 증기 다림질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법과 대학원을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날들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의 형제들과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도와 소나 말들을 돌보고 또 가구점 일을 도왔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는 법을 배웠으며, 또 운동도 했습니다. 특별히 야구와



5세 때



오른쪽: 12세의 어린이로써(왼쪽) 리틀 리그 야구 선수



상단: 독일 북 선교부 선교사로서. 위: 아들 개럿의 결혼식날, 부인 필리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한 스노우 장로

미식 축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침례 받은 다음 날 저는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금식 간증일이었으며, 저는 제 생애 처음으로 간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간증을 할 때, 저의 마음은 놀랍고도 따뜻한 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들어온 것이 올바른 일임을 영이 확인해 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느낌은 저의 작은 간증의 시작이었으며, 그 후로 제가 나이가 들에 따라 저의 간증도 커져 갔습니다. 어린이들도 자신들만의 간증을 키워 나갈 수 있으며, 비록 그것이 작은 간증일지라도 우리가 올바른 일들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동남 아프리카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회원들은 최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개척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간증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교회에 가기 위해 1시간 반 정도를 걷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보다 더 먼 곳에 사는 가족들은 택시 요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 주 내내 돈을 모읍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성찬식과 초등학교 모임에서 매우 경건합니다. 그들은 교사들이 가르치는 공과에 귀를 기울이며, 찬송가를 같이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는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찬송가, 6장)입니다. 아프리카의 성도들은 고든 비 히클리 대관장님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들은 그 분이 예언자이시며, 요셉 스미스가 이 지상에 복음을 회복시키셨다는 강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와드와 지부 회원들은 여러분이 말일성도 집회소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건물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의 러스텐버그의 성도들은 그들의 새로운 집회소가 완공되기를 기다리며 창고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제가 성찬식에 참석했을 때, 저는 그 창고가 지붕과 벽들 사이에 공간이 있으며, 바로 그 곳을 통해 바깥으로부터 공기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회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자, 새들이 날아 들어와 서까래 위에 앉았습니다. 그 새들도 우리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찬 찬송을 할 때도 그 새들은 또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교회의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매주 참석함으로써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참석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여러분은 성신을 느끼기에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신은 저와 아프리카의 성도들에게 강하게 간증해 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히클리 대관장님이 하나님의 예언자이시며 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간증해 줄 것입니다. ●

아프리카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히클리 대관장님을 사랑하며, 그 분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생애에서

목표를 달성함



어머니,
야구팀에 들고 싶어요.

히버 제이 그랜트는 소년 시기에 어머니가 청소하고, 설거지하며, 살림을 꾸려 나가는 것을 도와 드렸습니다. 그는 같은 또래의 다른 아이들처럼 스포츠를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을 이리로 던져,
이 집쟁이야

처음에 히버는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아이들과 야구를 해야 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공을 잘 던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팀의 아이들은 그를 놀려댔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에, 히버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최고의 팀에서
야구를 할거야.

히버는 야구공을 살 만한 돈을 모을 때까지 어른들의 구두를 닦았습니다.



자매님의 아들은 우리 와드에서 가장 게으른 아이입니다. 그 애는 여러 시간 동안 저의 헛간에서 공을 던지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에드윈 울리 감독님의 헛간에서 매일 야구공 던지기를 연습했습니다. 감독님은 걱정을 했습니다.



감독님, 제 아들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습하고 있는 중이에요.

히버의 끈질긴 노력은 드디어 빛을 받았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그리고 와이오밍 주에서 우승한 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브라이언 에스 힝클리의 '히버 제이 그랜트: 훌륭한 지도자의 삶에서의 하이라이트'에서 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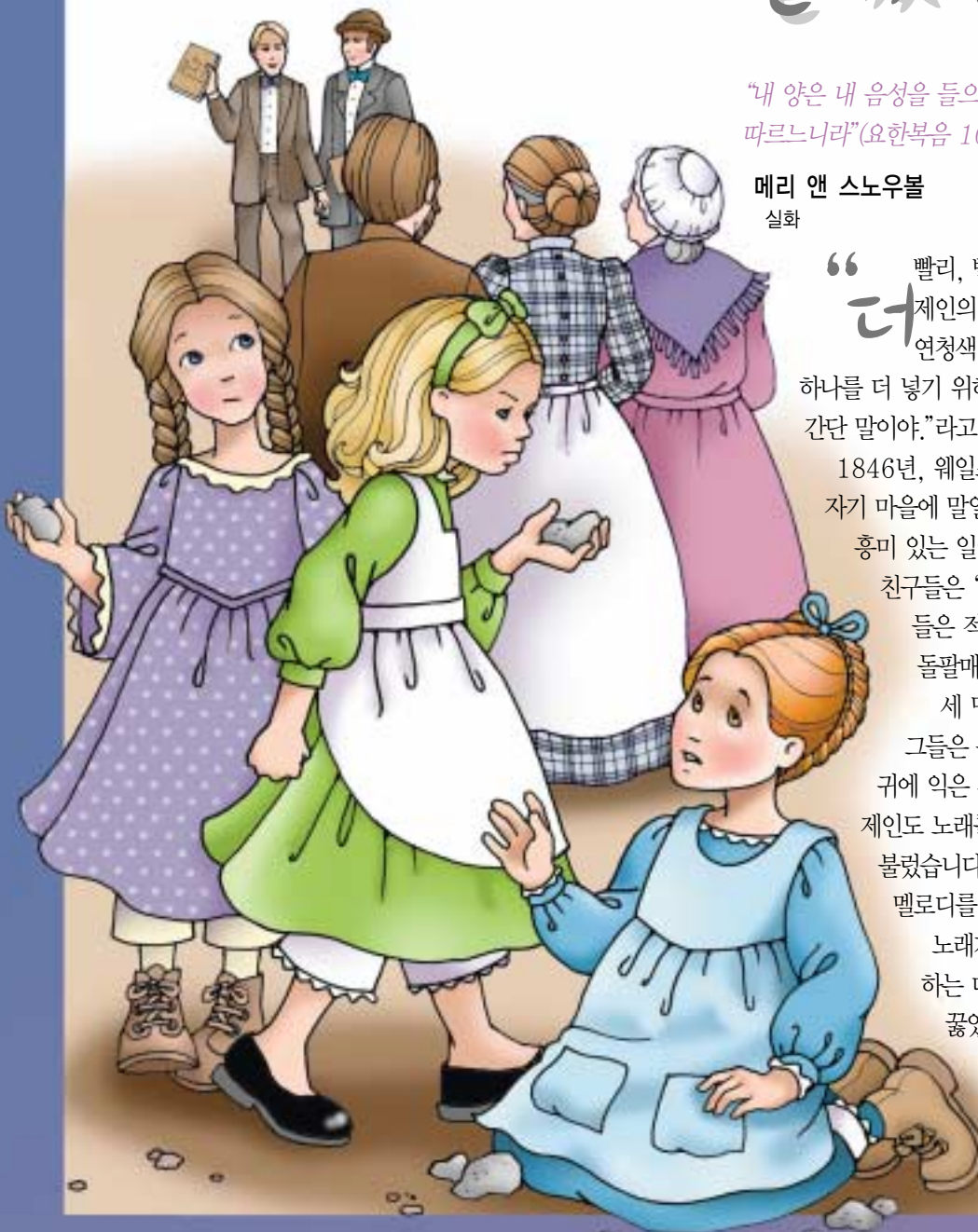


메리 제인은 귀 기울여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요한복음 10:27)

메리 앤 스노우볼
실화

“더 빨리, 빨리!” 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메리 제인의 친구들이 소리쳤습니다. 연청색 앞치마의 블록 나온 주머니에 돌맹이 하나를 더 넣기 위해 허리를 숙이면서, “간다고, 지금 간단 말아야.”라고 메리 제인도 소리쳤습니다. 1846년, 웨일즈에 살던 아홉 살짜리 소녀에게는, 자기 마을에 말일성도 선교사들이 온다는 것이 매우 흥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메리 제인과 그녀의 친구들은 “몰몬”들에 관한 매우 나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돌팔매질 당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명의 소녀가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들은 음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은 무리가 귀에 익은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메리 제인도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숨을 돌린 후에 같이 불렀습니다. 가사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멜로디를 따라 즐겁게 허밍을 했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에 메리 제인은 그 장로들이 하는 대로 기도를 드리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맹이들이 하나씩 그녀의 앞치마 주머니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메리 제인의 친구 한 명이 돌맹이들을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람들을 혼내 주자.”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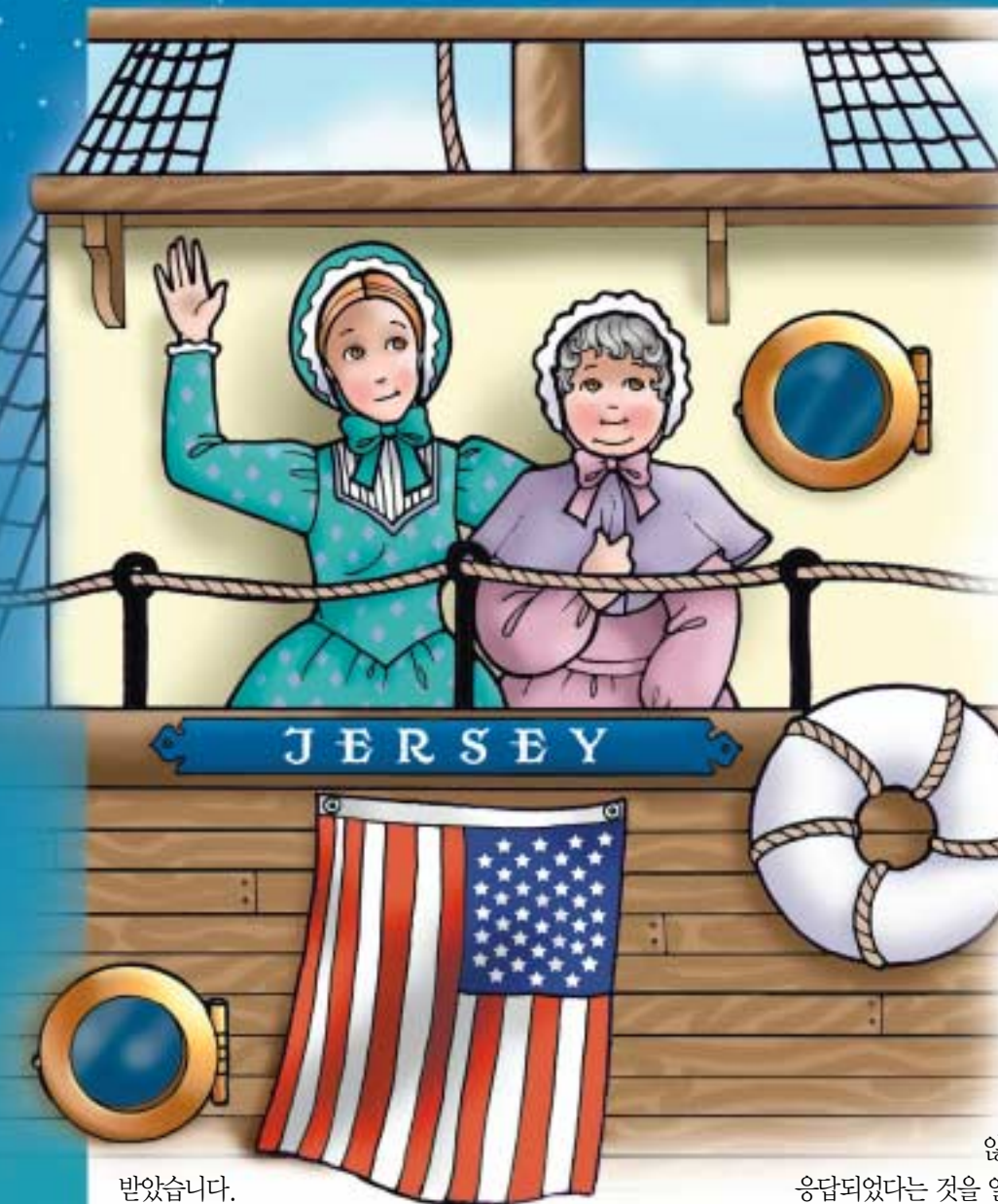
“안 돼, 나는 저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라고 메리 제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메리 제인은 선교사들에게로 눈을 돌려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장로들 중의 한 분이 요셉 스미스라는 예언자가 숲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장로는 우리가 왜 이 지상에 태어났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메리 제인이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그녀의 친구들은 군중 속에서 빠져 나와 놀려고 뛰어가 버렸습니다. 장로들의 설교가 끝나자, 메리 제인은 자신이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갔으며, 메리 제인은 계속해서 장로들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해 배우고 있는 내용들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선교사들이 가르친 내용에 대해 매우 반대하셨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딸이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때때로 옷을 숨겨거나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메리 제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는 법을 배웠으며, 간증을 얻기 위한 기도도 응답 받았습니다. 그녀는 침례 받기를 원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추운 어느 12월 밤에 얼어붙은 강에서 침례를



슬렸습니다. 메리 제인은 무릎을 꿇고 매일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교회 회원이 된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의 어머니도 침례를 받았으면 합니다. 제발 어머니가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해 주세요.”라고 그녀는 기도드렸습니다. 3년 동안 메리 제인은 그녀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메리 제인이 13세였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발에 난 질병으로 인해 매우 편찮으셨습니다. 그 병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메리 제인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오도록 해서 어머니가 신권 축복을 받으시는 게 어떻겠어요?” 발이 매우 아팠기 때문에 메리 제인의 어머니는 마침내 동의하셨습니다. 장로들은 메리 제인의 어머니에게 축복을 했고, 놀랍게도 어머니의 발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메리 제인은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어머니는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메리 제인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습니다.

메리 제인은 17세 때, 어머니와 함께 저지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갔으며, 그 후 유타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생 동안 메리 제인은 웨일즈의 한 길 모퉁이에서 배웠던 대로 구세주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날 장로들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것에 대해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메리 제인이 아홉 살이었을 때, 자신의 연청색 앞치마 주머니에서 떨어진 돌멩이들을 던지지 않기로 마음 먹었던 것을 생각하고 특별히 기뻐했습니다. ●

메리 앤 스노우블은 세인트 조지 유타 워싱턴 필드 스테이크의 리틀벨리 제1와드 회원입니다.

받았습니다. 장로들은 얼음에 구멍을 뚫기 위해 도끼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 날 밤 메리 제인의 몸은 몹시 추웠으나, 마음은 매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가 참된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분의 참된 제자들을 신뢰하십니다. 그분은 준비된 사람들을 [그분의] 준비된 종들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은 저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우연한 만남이 있을 수 없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희,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자녀와 제자”,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31쪽